



# 時 計 塔

## SIGETOP



2018년 7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5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鄭均熙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 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 就 任 辭

신임회장 정 균 회(72)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1972년에 졸업한지 46년만에 북미주 동창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 년간을 선후배 여러 동문을 모시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위상에 걸맞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학술대회가 35회에 이르도록 우리 동창회를 잘 이끄시고 발전시켜오신 선배님들,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가 거름이 되어 성장되어 왔습니다. 이번 New Jersey에서 열렸던 학술대회야말로 우리 동창회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57년에 졸업하신 원로 선배로부터 최근 졸업한 젊음까지 함께한 자랑스러운 서울의대 동문 모임이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위압, 간담, 한국인의 정신질환 등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 연구해주지 않을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차기 학술대회에도 (2019년 3월 22-24일) 이번 가졌던 논제를 그대로 더 update해서 연속성 있는 학술대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젊은 후배들이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열정적으로 준비해온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차기학술대회에는 동부의 인적자원이다가 서부에 계신 인적자원을 모두 동원하면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술대회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모교에서 활약하시는 동문들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동창회가 중심이 되어서 남가주의 많은 2세 한인사들도 참석해서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더욱 풍부하고, 폭 넓은 학술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신 회장님 너무 수고하시고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Non CME program도 재미있고도 풍부한 내용을 이었습니다. 주옥같은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는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내년 컨벤션에는 “신관도 명관”이란 새 표현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신 회장이 조직한 모든 committee chair를 base로 하여 꾸밀 예정 입니다. 남가주에서 임원으로 김성환, 차민영, 김동훈, 최광휘, 전경배, 김대중 이렇게 신임회장단에 join 할것 입니다.

CME, Non-CME, Annual Bowl, 전야제, Class reunion, Golf, 음악, 기념품, 사회자, fund raising, 전시회, 지금부터 연구 중 입니다. 참석하시면 흡족한 동창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한 말이 우리 동창회 Annual Bowl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기 않겠는가,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마지막 구절만 해석해서 “Isn't it Wonderful.”

## 편집회 초록: 편집위원님과 학생(본교 4학년)들의 만남

2018년 7월 14일 New Jersey “동방 그릴”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허선행(64), 서량(69), 서윤석(68), 이선희(81), 서귀숙(84), 황창근 사장, Jamie Kim 사무장 그리고 박은경(2000)이 e-mail로 참석하여 동부시간 오후 1시에 편집회가 시작되었다. 재무보고에 이어서 신입 편집위원인 서귀숙 동문의 소개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우리 시계탑의 종이와 사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종이와 새로운 기술(윤전기가 아닌)로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내용이 긴 원고를 나누어 실기로 했다.

한편 지난 기간 중에 편집위원회 앞으로 기금을 보내오신 강수상(53), 최창송(58) 동문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를 했다. 원고 교정을 마치고 다음 편집회는 토요일, 9월 29일 Double Tree Hotel에서 오후 1시에 정균회 회기의 1차 이사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폐회했다.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이선희(81), 강민중(91), 김현제(07) 동문들의 인솔로 미국에서의 여름방학 임상 실습을 위하여 서울에서 도착한 본교 4학년 학생들의 자기소개와 진술하고 다정한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배 학생들(사진의 앞줄에 착석한)의 이름과 실습 계획은 오정진(Columbia 대학 병원, PM&R), 성예지(Columbia 대학, Pediatric Neurology), 백종혁(Columbia 대학, Orthopedic Surgery), 박지영(Minnesota 대학, General Surgery), 윤진소(Rochester 대학, Pediatric Endocrinology)이다. 사진 참조 바람. (글: 편집인 서윤석)



## 離 任 辭

회장 한 승 신 (76)



일 년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서울의대 북미주 총동창 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심은 무엇보다도 미주 동창 선후배간의 화합과 젊은 세대(Green Project)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동문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5차 서울의대 미주 학술대회는 이 취지에 맞게 준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창 선후배간의 화합을 위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대회 첫날 아침 시간을 CME, Non-CME 구분 없는 General Session을 설정 주로 베테랑 동문들의 무게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대회 첫날 오후와 둘째날 모두를 최신 의료정보와 젊은 동문들의 전문분야 연구발표를 위하여 할애하였습니다. 또 젊은 동문들의 회의 참석을 고무하기 위하여 회의 날짜를 금, 토요일에서 토,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회의 일정을 바꿀 때 가장 걱정 되었던 것은 회의 날짜 변경으로 인한 금요일에 이루어질 pre-convention 행사들과 만찬 참여율, 또한 일요일 강의 참여율의 급격한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선배님들의 이해와 호응으로 마지막 강의까지 적지 않은 청중들의 참여는 발표하는 젊은 동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은퇴 하였거나 은퇴가 가까운 선배님들께서도 당신들의 전문분야와 관계없는 어렵고 전문적인 발표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젊은 동문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얻은 열매 두 가지를 열거 한다면 그중 한 가지는 “Liver and Stomach Cancer in Korean American”을 주제로 한 panel discussion 및 Town Hall meeting 후 현철수 전 KAMA회장을 chair로하고 오인환 전 미주서울대 동창회장과 다수의 서울의대 미주동문들이 멤버로 참여하는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parity Committee가 결성되어 미주 한인들의 위암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활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Stomach Cancer Disparity in Asian American에 대한 의료인, 일반 대중, 관련 정부 및 기관들의 계몽을 통해 주기적인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주지, 적어도 미주에 사는 한인들의 위암 치사율(~70%)을 한국인들의 위암치사율(~30%) 정도로 끌어 내리는 어렵지만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6월 24일 (일요일) EST 10:00 AM에 있었던 Panel Discussion on “Career Choice in U.S.”를 한국에 있는 모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공중보건외에 Mobile Phone이나 computer를 통하여 (원격화상회의 전문 프로그램인 WebEx Program을 이용) 참여할 수 있도록 program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동부와 한국간의 시차 문제로 한국에서 참여한 학생 및 공중보건외는 한밤중에 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학술대회는 LA에서 열리니 한국에서 회의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한밤중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통 저녁시간에 참여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scientific program을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남명호 Chair, 남영재, 신규호 Co-chair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회의진행이 정시에 이루어지도록 강사들에게 강의시간을 지키도록 안내해 주신 서귀숙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Non-CME session은 주로 은퇴하신 동문들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기위한 철학, 역사, 음악, 수필 감상, 재정관리, computer 상식, 얼굴 미용 등의 강의로 흥미있는 session이 되게 준비되었고 특히 운기철 동문님께서 지난 일 년간 준비해 주신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에 대한 강의는 토요일 오후 한 시간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요일 오전 7시(아침 식사 시간)에 그 강의를 이어졌는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중이 참여해 주심은 운기철 동문님께서 얼마나 정성들여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Non-CME program을 준비해 주신 김명원 Chair, 김정아 Co-Chair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를 빛내 주기위해 참석하신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윤상래 회장, 신응남 차기회장, 오인환 전회장, 멀리 한국에서 참석해 주신 홍정용 동창회장, 서창석 서울대학교 병원장, 신찬수 학장 및 모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새로 미주 동문들을 위해 학장상을 제정해 주신 신찬수 신임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중 동창회와 모교도서관을 위한 저서 및 서예, 미술작품을 기부해 주신 동문님들, 행사 준비와 골프대회 진행을 도와주신 유영걸, 민발식, 백승원 동문님, 컨벤션 등록과 저서 판매, 만찬중 Raffle Ticket 판매 등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및 모교 미주 임상실습 4학년 학생들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준비해 주신 이선희 Scholarship Chair 및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신 김용정, 강민중, 이태훈, 조수정 동문님들 감사합니다. 서윤석 편집장님, 주광국 재무 및 Website Chair, 송경민 Website Co-chair, 그리고 각 Committee Chair와 Co-chair로 수고해 주신 모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 모든 일에 다 관여하며 수고해 주신 강민중 총무님, 동창회 사무장 제이미 씨와 부군 김성곤 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신임 정균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동문들이 힘을 합쳐 더욱 힘차고 발전된 동창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7-2018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8년 6월 21일 4시(동부시간)

장소: 동부 -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Teaneck, NJ

서부 -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이만택(58) 채규철(59) 고희호(62)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김의신(66) 이명희(66) 최영자(66) 서윤석(68) 김성환(71) 곽승용(71) 이성길(71) 이원택(71) 정균희(72) 박진섭(73) 김원정(75) 전경배(75) 김정아(76) 유영걸(76) 한승신(76) 강민중(91) 백승석 fund manager

Proxy:

김응식(55) 한성택(57) 김택수(63) 김태웅(63) 추재욱(63) 신두식(64) 김명원(68) 이건일(68) 신용계(68) 임응규(69) 신규호(68) 주광국(68) 이성춘(70) 강창홍(71) 김일영(71) 조세진(71) 석창호(72) 최인섭(72) 민인기(73) 한민우(75) 김대중(76) 남명호(81) 심인보(83) 서귀숙(84) 이영인(86) 신원석(88) 손정현(90) 남영재(94) 강현석(00) 송경민(09)

1. 회의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한승신 회장이 제2차 대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 지난 "2017-2018, 제2차 이사회 회의" 초록에 대하여 강민중 총무가 간략히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발표한 초록 내용은, 2018년 1월 호 시계탑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

2. 재정위원회의 재무보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a. Income(05/31/2018년 현재): Income (\$244,158.68), Expense (\$127,632.17), Transfer from last fiscal year (\$226,781.37) -> Total (\$343,307.84)을 보고함.

a. Expected Expense (\$101,500): Food and Beverage provided by Hotel(\$38,000), Lunch and Reception provided by Sue Kim(15,000), Facility fee (AV including Microphone and mixer; 3,500), Fee for professional MCs and Photographer (5,000), Banner, plaques, printing program and etc. (5,000), Award and Gift (5,000), Lodging for invited guest(including Guest from Korea and travel expenses for speakers; 20,000), Expenses for pre and post convention tour and Golf (10,000), 등등의 상세 내역을 보고함.

c. Expected Balance after the 35th Convention (\$241,010.37)을 보고하였음

3. 재정위원회로부터, 현재 보통예금 계좌(checking account)에 머물러 있는 동문회의 운영자금 중, 일정 금액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안건으로 제시됨 (Following the review of the Financial Statement of June, 2017, Financial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accrued Scholarship donations (about \$97,000) be transferred to Scholarship Management Fund).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5만 달러의 금액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기로 함. 이는 지난 이사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백승석 펀드매니저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이번 대의원회에서 승인이 됨.

- 매년 받고 있는 Financial statement에 나타나는 committee 별 잔고 액수가 누적이 된 액수로 매년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실제상으로는 없는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 근래 7년 내의 기록에서는 각 committee의 잔고가 매년 소진이 되고 있고, - 서윤석 회기에서부터 scholarship fund에 남은 잔액 scholarship fund를 은행구좌에서 투자 fund로 넣고 있음이 다시 보고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는 것이 이번 대의원회에서 다시 확인함.

4. Publication Committee (서윤석 위원장) 보고.

- 제2회 우수 작품상 모집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임을 보고함.  
- 동문 부인들로부터의 더 많은 원고 투고를 환영한다는 말씀과 또한 동기들의 행사소식과 각 지역 동창회 소식을 편집위원회에 활발히 알려주기를 당부함.  
- 지난 12년간 출판된 시계탑의 내용이 모두 다 동창회 웹사이트 (snucmaa.us.org)에 실려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음.

5.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보고.

- 본 동창회가 주도하여,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기관에서 진행하는 "See, Test & Treat From the CAP Foundation Collaborative Patient Centered Model" 연구 기금에 응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함. 이와 관련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문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대의원회에서 승인함.

6. Scholarship Committee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음.

- 지난해(2017년) 7월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미주 병원연수 참가 서울의 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올해에는 지역별 미주동창회가 주관하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함. 원래, 35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미주 병원연수 참가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으나, 본교 학사 일정상 실현이 어려움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한승신 회장께서 이미 지역별 미주 동창회 동문들께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음.

7. 2018-19년 회기를 맞아 새롭게 동문회를 이끌어갈 차기 동문회장으로 결정된 정균희(72) 동문 (현 남가주 지부 동창회장)으로부터 동문회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신임 회장의 포부 및 간략한 인사말이 있었음.

8. Convention Committee (유영걸 위원장) 보고가 있었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발표된 바와 같음.

9. Scientific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발표된 바와 같음.

10. GP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특히 "자랑스런 Mentor상"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11. GP Committee - 자랑스런 Mentor상

a. 취지: 후배들 미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된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고, 후배들을 이끌어 갈 위치에 있는 동문들의 Mentor로서의 노력 고무하며, 미주 동창회 회원 수의 증가와 동창회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b. 자랑스런 Mentor상 수상자 추천 광고 (시계탑)

c. 신청 접수 (Need at least one nominator and one supporter): 1 page statement

by the nominator가 제시되어야 함.

d. 수상자: 1 년에 한 명

e. 대상자 선정: GP committee 안에 선정위원회 결성, 그 위원회에서 결정

f.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SNUCMAA member only" or "Any Physicians or Scientist"를 포함하여, 논의가 진행됨. 동문 내로 국한하지 말고, "상의 취지에 맞는 Any Physicians or Scientist"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g. 수상금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으로는 \$1,000.00의 의견이 제시, 이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h. 심사기준 (Nominee의 CV와 Nominator/ Supporter의 supporting letter를 통한 심사): (가) Counselling and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a mentee to find his/her own path to person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success / (나) Sponsor and advocate for the mentee in academic or professional community / (다) Involves the mentee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publication, conferences or other venues that can share and communicate intellectual or professional information / (라) Provide support in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matters / (마) Successful role model by their colleagues / Long term commitment to mentoring

i. "자랑스런 Mentor상" 관련하여, 시계탑에 공고하기로 결정됨.

12. Unfinished business 및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마지막으로 제1차 이사회 일정과 관련하여, 신임 회장님께서 추후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Prepared by 총무 강민중(91)

##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 제4회 함춘공로상, 학장상, Mentor상

지난 6월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중에 제4회 함춘미주공로상 시상식이 있었다. 함춘공로상에는 임종식(57), 한기현(63), 김성환(71) 동문들께서 수상했으며, 올해 처음 제정된 학장상은 김원정(75) 교수가 그리고 또한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북미주동창회의 Mentor상에 김의신(66) 교수가 수상했다.

임종식 동문께서는 상금 전액을 본교 학생도서관 건립기금으로, 한기현 김성환 김원정 동문들께서는 상금 전액을 미주동창회에 기부했다.

사진: 좌로부터 임종식, 한기현, 김성환, 김원정 동문



### 집으로 찾아가 - 노용면(55) 동문

동문 여러분, 나는 작년 8월에 있는 교통사고로 두 아들과 같이 지내다가 며칠전에 Pelham Manor에 있는 우리 집에 갔습니다.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옛 친구들을 생각 했습니다.



### 버지니아 지부 춘계 골프대회 보고



지난 5월 10일 Reston, Virginia 에 있는 Hidden Creek Country Club에서 버지니아 지부 회장 김진수(66), 부회장 조병선(71) 주관하에 Club Member인 박수웅(69) 동문의 주선으로 춘계골프대회를 성대하게 마쳤다.

동창회 시합때마다 함상 말씀을 부리던 일기예보에서 심각한 천둥번개가 이날도 예측되었지만 김회장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지역만을 빗겨 지나갔다.

참가자는 한달수(59) 김용덕(59) 진창근(61) 고영희(63) 이중오(64) 이웅만(64) 김진수(66) 주광국(68) 신용계(68) 김진홍(68) 김희주(68) 김주평(68) 김철(68) 서윤석(68) 김병오(69) 박수웅(69) 조병선(71) 이돈성(고조선 역사 學者, 카톨릭의 대). 여성부에는 김진수, 박수웅, 김병오, 김진홍, 김철, 조병선 사모님들이 참여했다.

여성 수상자에는 Gross 1, 2등에 Mrs. 김진홍, Mrs. 김철, 근접상에 Mrs. 김진홍.

남성 수상자에는 Gross 1등에 조병선, 공동 2등에 김진수, 박수웅, 근접상에 김주평 이었고 특별 장려상에 이중오(64, 춘원 이광수 연구 著者) 이었다. 시상식과 더불어 역사가 깊은 이 Country Club에서 저녁만찬이 있었고 이번 서울의대동창회(홍정용 회장, 김윤기 사무국장)에서 보내온 2018년도 발행 동창회명부를 참석 한 동문들에게 1부씩 전달했다.

Virginia Chapter는 해마다 회원수가 증가하는 활기찬 동창회의 모임이 되어서 지난 5년간 봄과 가을로 골프대회를 하고 있으며 정기모임도 따로 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타 의대 동문과도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고려중이다. - 사진과 글: 편집인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신재현 (05) 동문**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 NJ에서 열렸던 동창회 연례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Fecal transplantation in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했던 신재현(05) 동문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신재현 동문은 모교 졸업 후 경기도 가평 꽃동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였고, 도미하여 Rochester General Hospital (Rochester, NY)에서 내과 residency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병원에서 resident preceptor 및 primary care physician 으로 수년간 일하다가, 현재 몸담고 있는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로 옮겨 감염내과 fellowship 과정을 밟은 후 C. difficile infection에 관한 연구의 매력에 푹 빠져 post-doctoral fellow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시계탑이 배달되는 7월부터는 조교수로 승진하니,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우아하게 첼로를 연주하던 스무살 청년이 어떤 계기로 fecal material을 열정적으로 논하게 되었는지, 연구하는 의사로서 어떤 꿈을 꾸며 30대를 보내고 있는지, 인간미와 지성미를 겸비한 Dr. 신을 만나보십시오.

- 어떤 계기로 미국행을 택하였나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살았던 기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미국 생활을 늘 동경했었어요. 의대에 입학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겠거니 했는데, 본과 3학년 때 미네소타 대학병원으로 클럭십을 다녀 온 한 동기의 경험담을 듣고 나서는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이면서 연구자가 되기를 원했던 저에게 미국의 교육 환경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어린 시절 동경하던 모두 수영장 있는 집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미국 생활과는 많이 다르지만, 의사이자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미국에 올 때 그랬던 그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Dr. 신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기억나는지요?**  
 Dr. 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인사차 저와 만났을 때 여행 동호인 모임에 참석하려 흥대에 갔었지요. 한겨울에 여름 휴가 의상 뽐내는 이벤트에서 Dr. 신이 기지를 발휘하여 흥을 돋우고 우리팀이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Dr. 신이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만 많이 보아서 그런지, 내성적이고 진중한 성격인줄로만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이 신선하고 좋았었습니다.  
 하하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저도 그런 젊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즐기시는 선배님 모습이 새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고 진중한 성격인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양한 제 모습들 중 하나일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삶의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즐거운 것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만이라면 오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 3.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을 말씀하시니. 언뜻 공자님과 인상마저 닮은 것 같은데요? 미국에 온 후 성격이나 생활 패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곳 생활이나 병원문화에 잘 맞는지요?**  
 맥주 한 병 들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의대 다닐 때에는 동아리 활동 후 자주 가졌던 술자리에서 대화보다는 연이은 원샷 건배로 취할 때까지 마시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에 오니 우선 술을 마실 기회가 흔하지 않고, 어찌다가 파티에 가더라도 맥주 한 병 들고 한 시간씩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무척 낯설었습니다.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술도 마시지 않는 분위기라니 어색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바뀌더군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는 것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더 편해졌어요. 요즘에는 실험실 동료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 친구들과 맥주 한 병으로 한 시간쯤 보내는 것은 이제 문제도 아니지요.
- 4. 아기가 20개월쯤 되었는데, 요즘 생활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기가 생긴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요? 육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요?**  
 아기가 생긴 후 가장 큰 변화는 자유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모든 시간을 아기와 함께 해야 하니까요. 한국에 있었다면 다른 식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내와 저 단둘이서 모든 일을 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돌고래 소리를 내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를 보면 그냥 모든 게 예쁘고 좋아요.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한국말입니다. 아이와 깊은 대화도 한국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5. 맞아요. 돌고래소리! 부모에 대한 그 천연무공해 사랑. 아이가 커도 한국말로 속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에도 동감합니다. 내과 중 감염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감염 분야의 매력도 소개해 주실까요?**  
 내과를 선택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인체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싶어서 내과를 선택했고, 내과에서도 한 기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분야를 하고 싶어서 감염 내과를 선택했습니다. 레지던트 첫 로테이션이 감염 내과였는데, 어텐딩이 탐정같이 차트를 살살히 뒤져서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점을 찾아내는 모습에 감탄했지요. 이렇게 알아낸 단서들을 조합하여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타과 의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만약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지구 환경변화와 감염병의 만연이 아닐까요? 질병에 맞서 싸워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의사로 산다는 것, 멋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 6. Super Heroes 목록에 감염내과의 사도 넣어야겠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대 다니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특별히 애착이 있던 캠퍼스 내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학생 때 음악반을 해서 학생회관에 있었던 음악반 반실에 추억이 많구요, 또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함춘당 식당도 기억에 많이 나네요.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실습이 끝나고나면 무척 피곤했는데, 함춘당에 가서 삼천원짜리 돈가스 하나씩 시켜먹으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삼백원이었나요, 함춘당 라면도 언제나 맛있었지요.
- 7. 화력이 센 가스불에 양은 냄비를 얹혀 보글보글 끓여 나왔던 함춘당 라면은 일품이었지요. 가래떡을 넣어주는 떡라면도 좋았고 맛도 있었어요.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글귀, 팬찜았던 영화 등이 있다면 시계탑 독자들에게도 귀띔해주세요.**  
 펠로우 때 같이 일하던 어텐딩이 감염내과 의사라면 필독서라며 추천해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Abraham Verghese 라는 인도계 감염내과 의사의 <My Own Country>라는 회고록으로, Tennessee 시골에서 AIDS가 처음 유행하던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땐 이민 온 의사로서의 저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어갈 즈음에는 AIDS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사회의 편견과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환자와, 그런 환자를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과 강인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8. 요즘 첼로는 하나요? Dr. 신을 이야기할 때 첼로는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오케스트라에서 그윽하게 첼로를 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안타깝게도 첼로는 만지지 않은지

오래되었어요. 처음 첼로를 접한 것은 어릴 때 미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바이올린을 하던 제 여동생이 매주 토요일 예비학교에서 레슨을 받았는데, 어머님께서 그 동안 저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제게도 악기를 하나 가르치기로 하셨습니다. 피아노는 배웠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서 다른 악기들 중에 덩치에 맞는 것을 고른 것이 첼로였습니다. 첼로 곡으로는 바흐 무반주 모음곡을 가장 좋아합니다만, 요즘에는 첼로 솔로가 나오는 베토벤 3번이나 7번 교향곡 2악장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은 광고나 영화에 많이 나와서 들으면 익숙하실 텐데요, 영화 <King's Speech>의 마지막 연설 장면에서 그 곡이 배경음악으로 쓰였는데 몽글하더라고요. 영화와 음악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 9. 한국 방송은 즐겨 보시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시는지요? 자주 방문하시는지요?**  
 아내랑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같이 보곤 해요. 한국에 자주 갈 수 없는 갈증을 한국 방송을 보면서 약간은 해소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영상 통화로 연락합니다.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부모님께서서 미국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저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갔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 아직 업무가 안 나네요. 한국의 친구들과도 종종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아요.
-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40대에는 어떤 삶을 그리는지요? 그리고 미국에 오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40대에는 제가 하는 연구가 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연구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까운 목표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하게 될 모험들을 가족 모두가 함께 하고 싶어요. 미국에 오고자 하는 후배님들에게 해주고픈 말은 너무 많은데, 한가지만 고른다면 유명한 야구선수인 Yogi Berra의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병원 어텐딩 중 한 분이 환자를 보다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는 말이기도 한데, 바로 “When you come to the fork in the road, take it!”입니다. Fork in the road는 두갈래 길을 이르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미국 진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정을 내린 후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은경 편집위원)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농담 골목**

후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전까지는 젊은 여자를 보면 가슴이 출렁거렸는데 이제 안 그렇습니다. 내 신경이 늙어지는 듯 합니다." (노용면)

선배 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넘어질까봐 겁이 나, 남을 가까운 거리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노용면)

무술년 새 해를 맞아 어떤 사람이 점을 보았는데 점괘가 이렇게 나왔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돈뿔치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기쁜 점괘를 빨리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 자동차 속력을 내면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만 현금 수송트럭과 크게 충돌하고 말았다. (이덕송)

한 가정부가 월급을 타면 주인집 개에게 고기를 사다 줬다.

하루는 집주인이 이유를 묻자 가정부가 대답했다. "제가 개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한 뒤로 한 번도 손으로 식기를 씻은 적이 없어요. (이덕송)

**좀 멋지게 살자**  
 멋진 건 스스로 낮아지는 것.  
 주어진 걸 적절하게 취하고 나머지는 환원하는 것, 나를 위한 소비보다 남을 위한 나눔이 많아지는 것을 말해. - 오선화의 《아메상담》 중에서

같은 부자라도 멋진 부자, 멋없는 부자로 갈립니다.  
 명품에 고급 향수에 온갖 것으로 꾸미고 불여도 '똥공'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나눔, 환원, 배려, 스스로 낮아지기...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

### 2018년 “미주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 보고

2018년 7월 14일, 미주 병원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가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미주지역 병원 연수에 참가한 서울의대 4학년 학생들과 서울의대미주 동창회 선배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써, 수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연례 활동입니다.



올해의 행사는 예년과 다른 시도를 하였습니다. 미주지역의 병원에 연수 나온 전체 학생들을 초청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진지하게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선,후배간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다섯 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멀리 미네소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참여하거나, 로체스터에서 밤 버스를 타고 뉴욕까지 먼 길을 오는 열성을 보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본 행사 시간 내내 깊이 있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진지하게 미주 진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희(81) 동문, 강민종(91) 동문, 김현재(2007) 동문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태곤(2001) 동문과 박은경(2000) 동문이 원격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하였습니다. 바쁜 병원 일정상 모임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김태곤 동문은 오후 12시부터 약 45분간, 박은경 동문은 오후 4시부터 약 45분간, 참여한 학생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전수해 주었으며, 병원 수련과정을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거나 또는 시작한 그 구체적인 경험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또 후배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 체험에서 우려난 생생한 답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3년은, 미국이민에 대한 생각을 더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에서 하루에 50-60명의 환자를 보면서 textbook 진료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진료시간과 진료환경, 뿐만 아니라 500원의 진료비를 받으면서(65세 이상은 무료) 하는 진료에 환자도 의도진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진료에 대한 낮은 기대치 때문에 한없이 떨어지는 의료의 질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의료의 접근성과 질(quality) 사이의 긴장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의료가 가지는 장점도 일부 있겠지만, 의사로서 더 나은 의료적 환경이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고픈 바람을 갖게 되었고 이는 USMLE 시험을 준비하는데 좋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 미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옵저버쉽(Observership) 미국 대학병원의 의료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예일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의 옵저버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예일대병원에 계신 서울의대 선배님이신 김태곤 선생님께서 연락 드렸고, 한 번의 전화 인터뷰 이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일대병원 옵저버쉽 첫 날, 선생님은 제가 참관하게 될 교수님들의 이름과 스케줄을 종이에 적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히 참관할 수 있도록 다른 교수님들께 저를 소개시켜주셨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의대 후배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 어텐딩들의 진료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게 스케줄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배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어렵게 마련해주신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옵저버쉽이라는 것이 누구도 참관하는 사람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가르쳐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본인이 배우려고 해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Hematology consult team과 함께, 그리고 오후에는 스케줄에 따라, 악성혈액종양환자들을 보시는 포돌세프

또한, 오후 1시부터 2시30분 동안, 시계탑 편집위원 선배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 날의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이메일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략)  
어제 버스타고 오늘 새벽 일찍 도착하여서 폭 쉬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선생님과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조금은 막막했던 과정이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안도 받고, 격려도 받고, 무엇보다 조금 더 기쁨이 구체화 되는 거 같아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거 같았는데, 이 길로 먼저 오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일단 elective을 잘 마치고, 그 후 돌아가서 먼저 국내 학업 및 한국 국 시공부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진지하게 또는 열심히 미국시험을

준비해서 꼭 훗날에 선배님들이 계신 미국에서 동료로, 후배로 만나 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우리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유를 위 학생의 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원격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미주 동문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 참여 학생들.

- 글: 강민종 동문

### 오월이 오면

Ellen Chung

오월이 오면 나는 그대와 함께  
버드나무아래에 앉아 있으려네  
찬란한 태양아래 눈부신 그대  
나는 아름다운 전설들을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네

저멀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  
라이락꽃향기 속에  
나는 그대와 함께  
아름다운 오월의 꿈을 꾸고싶네

고 정낙섭(60) 동문 부인



## 미주 병원연수 경험담

정철원 (2010)

안녕하세요, '10학번 정철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미국 전공의 매치에 참여하여 일리노이 주 에반스톤의 Presence Saint Francis Hospital에서 내과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USMLE 시험공부를 결심하였던 것이 2015년 이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겠지만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약하나마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글을 씁니다.

####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도전하게 된 이유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도전하게 된 것이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09년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10여년의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학 중 의학에 뜻이 있어 의과대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미국 영주권이 없는 저로서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기 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부 성적도 연구경력도 특출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메디컬 스쿨 진학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때마침 한국에서 생긴 의학전문대학교 제도를 통해 서울대 의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워낙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MLE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사자격증 취득 후 미국 전공의 수련이라는 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님과, 양성혈액질환 환자들을 보시는 알프레드 리 교수님, 그리고 육종환자들을 보시는 데쉬관데 교수님의 외래에 들어가 참관하였습니다. 처음 consult service를 참관하였을 때는, 생소한 약물 이름만큼이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직 전공의 수련도 안한 제가, 모르는 것이 많은 게 정상이라고 위안을 삼으며 혼돈의 첫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응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1) 시간엄수하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으로 엄수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민망할 정도였지만, 그 대신 성실한 태도만큼은 늘 탑재하고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2) 자주 오는 자문들과 친해지기:  
Hematology consult service에 다루는 자문들 중, 빈도가 높은 자문들에 대하여 Uptodate를 읽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Hematologic Consult 중 자주 오는 자문으로는, DVT에서 어떤 anticoagulation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HIT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의 진단 같은 부분은 익혀놓으면 discussion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문헌 읽기:  
하루 일과가 끝나거나, 비는 시간이 있을 때 Hematology 관련 문헌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헌을 읽어야 하나 감이 잡히지 않아서 포돌세프 교수님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American Journal of Hematology(AJH)의 education section의 논문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Blood Journal의 How I treat section 에도 논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문헌을 읽어야 하나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 4) 기여할 수 있는 것 찾기:  
Hematology consult service에 있으면서 옵저버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문헌 검색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일대병원으로 워낙 다양한 환자들이 오다 보니, 특정 상황에 대한 문

헌 검색은 진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중 치료나 진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의문을 갖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치료나 진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issue에 대해서는 어텐딩이나 펠로우가 이미 문헌 검색을 끝마친 상황이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찾아보기는 귀찮고 환자 management에 큰 도움은 안되지만, 의학적인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문헌 찾아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내가 팀에 뭔가 기여를 하고는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더 재미도 있었습니다. 예일에서의 Observership 경험은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의식저하로 온 AML 재발 70대 환자의 가족들과 의료진이 함께 모여 40여분 동안에 걸쳐 이야기를 들어주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함께 고민했던 경험, 환자들에게 인기 만점인 알프레드 리 선생님 진료에 참관하였던 경험, 김태곤 선생님의 Immune Modulation 연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경험, 선생님과 함께 Bone marrow transplant 환자들 라운딩 했던 경험... 너무나도 값진 경험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맺음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딱 2달이 남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매치만 되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시작했지만, 매치가 되고 난 지금, 기쁨과 함께 덤으로 수많은 고민들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 가족과의 이별, 금전적인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인만큼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미국에 계신 서울의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미주동창회 35회 학술대회를 마친 소감

남명호 학술대회장 (81)



처음 한승신 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scientific committee chair를 부탁 하셨을때 얼떨결에 맡게된지 벌써 훌쩍 일년이 넘었다. 지나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는것인지, 몸과 마음이 많이 바꿨지만 많은 선

후배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한 보람있는 경험이었다. 한승신 회장님과 김정아 선배님의 자상한 guide와 support는 가끔씩 지쳐있을때 오아시스의 샘물같은 존재였고, 남영재 scientific committee co-chair, 이선규, 장세권 GP Committee chairs, 송경민 Web committee co-chair 등 젊은 동문 여러분들과의 teamwork는 환상적이었고, 그들의 반짝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올해 프로그램의 highlight들을 이루었다.

올해 CME program은 다음 세가지 사항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첫째, 선배님들과 젊은 동문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참가하는 program, 둘째, 젊은 동문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프로그램, 셋째,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의대와 젊은 미주 동문들의 학술 발표 및 네트워킹.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젊은 동문들의 참가를 encourage하기 위해서 기존의 금-토요일 오전에 진행하던 CME 스케줄을 토-일요일 오전으로 기꺼이 바꿔주신 회장단, 컨벤션 chair 및 선배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짧은 문장력과 딱딱한 지면으로 모든 프로그램 내용 전부를 정리할 수는 없으니, 연사들과 강의 topic, panel discussion 및 새로운 시도들은 아래 첨부한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DAY 1 6월 23일 (토요일)

- GENERAL SESSION I** Moderator - 남명호, MD (81)
1. Mental Conditions Affecting Senior Population & It's Management 박승균, MD (61)
  2. 소아 정신 질환 (Childhood Mental Disorders) 김원정, MD (75)
  3. 한국 의료보험 소개 (Healthcare Policy in Korea) 권용진, MD PhD, SNUCM
  4. 노년의 신장 건강 (Renal Dysfunction Affecting Senior Population) 김연수, MD PhD, SNUH
  5. 한국인 암 유전체 연구 (Genetics of Korean Cancer Patients) 김종일, MD PhD, SNUH
  6. Demo for New SNUCMAA-NA Website 송경민, MD, MPH, MBA (09)

- GENERAL SESSION II** Moderator - 임종식, MD PhD (57)
- Panel Discussion I: Healthcare Disparity in Korean-American Population: Emphasis on Stomach Cancer and Chronic Liver Disease including Liver Cancer**
1. Consortium Research Grant for Minority Health Focus: 송민경, PhD, NCI, NIH
  2. 한국의 위암, 간암, 간염의 검진과 치료성적: 양종인, MD PhD, SNUH- (Stomach and Liver Cancer - Current State of Care in Korea)
  3. Challenge in Screening for Hepatitis in Korean-American: 한수웅, MD (61)
  4.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iver Cancer in Korean-American: 한혜원, MD (61)
  5. Epidemiology of Stomach Cancer in Korean-American: 이은정, PhD, USC
  6. Treatment Results of Stomach Cancer in Korean-American: 박찬형, MD, PhD (62)

- Town Hall Meeting (Lunch Meeting)** Moderator - 한승신, MD(76)
- Discussants Panelists for General Session II
- Invited guest: 오인환, PhD Chul Hyun, M.D.

- Panel Discussion II:** Moderator - 강운중, MD PhD
- "Advances in Medicine - Regenerative Medicine"**
1. Neurologic Disorders: 강운중, MD PhD
  2. Orthopedic Disorders: 윤강섭, MD PhD, SNUH (81)
  3. Blood Disorders: 최태웅, MD PhD (02)
  4. New FDA Guidelines on "Cellular Therapy": 남명호, MD (81)
-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by Polaris Exercise"**  
Margaret Carey, MD (Georgetown Univ.) & Penny Potter, PhD (George Mason Univ.)

## Day 2 6월 24일 (일요일)

1. GP Podium Presentation I Moderator - 서귀숙, MD PhD (84)  
김현제, MD PhD (07) 임경빈, MD MS (99) 박종철, MD (99)  
신재현, MD PhD (05) 윤정현, MD PhD (06) 이준규, MD PhD (08)
2. Panel Discussion III Moderator - 이선규, MD PhD (89)  
**Special Lecture: "NIH Funding Opportunities for Career Development Awards and Other Research Grants"** 송민경, PhD, NCI, NIH  
**"Career Choices in the US: Advice from Real-Life Experience"**  
1. Academic Career  
a. Trainee: Dept. of Radiology, Univ. of Iowa 박은경, MD PhD(00)  
b. Clinical Career  
Early Career: Medical Oncology, Assistant Prof. Northwestern Univ. 채영광, MD PhD (02)  
Mid-Career: Pulmonology and Critical Care, Univ. of Illinois 박계영, MD PhD (90)  
c. Research Career: Yale Univ. 강민중, MD PhD (91)  
2. Private Practice: Endocrinologist, California 이도은, MD (99)  
3. Non-Medical Practice:  
a. Biomedical Career: 강현석, MD MS (00)  
b. Non-Biomedical Career: 송경민, MD, MPH, MBA (09)
3. Panel Discussion IV (Lunch Meeting):  
**"Women in Medicine"** Moderator - 오무연, MD (89)  
Panelists: 송경민, MD, MPH, MBA (09); 서귀숙, MD PhD (84); 오무연, MD (89)
4. GP Podium Presentation II Moderator - 장세권, MD (01)  
강민중, MD PhD (91) 채영광, MD MPH MBA (02) 김태곤, MD PhD (01) 이도은, MD (99)

토요일 오전의 General Session I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topic들을 40년이 넘는 참석자의 연령대 차이와 동문 가족들을 포함한 비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사들의 강의와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demo가 있었다. 선배, 후배 그리고 동반 가족들이 즐기셨으면 감사할 뿐 - CME Evaluation은 아주 좋게 받았으니 (5점 만점에 4.75-4.9) 해마다 모든 동문들과 가족들이 컨벤션을 같이 시작하는 General Session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다음, General Session II 및 lunch time Town Hall Meeting에서는 의료 수준 최고인 미국에서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미국 주류에는 드물지만,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흔한 "바이러스성 만성 간질환, 간암 및 위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panel discussion이 있었다. 간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및 계몽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위암의 경우는 한국의 통계에 많이 처지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session 이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AASCTF -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Task Force"가 발족해서 미주 전체의 한국인뿐만이 아닌 High-risk Asian들의 위암 조기진단을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게된것이 성과라하면 성과라고 할수 있겠다 -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옛말도 있듯이...

젊은 동문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Moderator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새로운 시도들, 젊은 동문들의 활발한 참여, 그리고 현 회장단의 절대적인 support의 3위 일체가 이룩한 결과였다.

송경민 동문의 WebEx 시도 (송 동문의 글 참조) 이외에도 "Career Track panel discussion", "Women in Medicine",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GP Committee Meeting (banquet후 술마시며 새벽까지 열린 토론 후에도 아침 7:30분에 podium presentation에 늦지 않고 참석하는건 우리 서울의대 졸업생들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였음)" 등등 앞으로도 다음 학술대회에 theme과 speaker들을 바꿔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컨벤션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한다.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자꾸 연사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강의 시간을 줄였어야 했던 점과, laser pointer와 timer 등 준비가 부족했고, 한 두분의 연사들이 시간을 넘겨서 커피 break 타임이 아주 짧아졌다는 점, 그리고 General Session 이후의 좋은 강의에 참석자가 너무 적었다는 점 등등. Non-CME session topic들이 선배님들께 너무 인기가 좋아 달걀로 바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는 CME program에 non-SNUCMAA 단체들 (nurses, pharmacists, technologists, local medical students' club, etc.)을 초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통정리 해주느라 수고한 제이미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비디오 컨퍼런스

송 경 민(2009)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벤션은 여러 모로 의미있는 행사였다. 많은 동문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 저자가 제안하고 실행한 것이 비디오 컨퍼런스의 도입이었다. 많은 컨퍼런스나 행사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비디오 혹은 오디오 컨퍼런스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Career Choice in the US: Advice from Real-Life Experience 패널 디스커션 준비 중 토의 내용이 한국에 있는 의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널 좌장을 맡으신 이선규 선생님께 비디오 컨퍼런스를 제안했다.

그 이후 여러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비디오 컨퍼런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무수한 이메일과 두 번의 trial run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공보의가 패널 디스커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처음이라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비디오 컨퍼런스는 컨벤션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을 연결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늦은 시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준 후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35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에 다녀와서



한승신 회장과 신규호 공동학회장

1972년 (초대회장 이광수 NYU 약리학 교수) 설립된 우리 동창회는 1976년 11월부터 거의 해마다 학술대회를 열어왔다. 초창기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든든한 기금을 마련하고 China Medical Board와 연대하여 장학생 선발, 사회봉사,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금년에도 46대 회장단인 한승신 교수의 주최로 제35회 Medical Science Convention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술대회의 중심 의제는 'New Horizon in Medicine' 중에서도 Regenerative Medicine'으로 계획하여 대성공을 거두면서 행사를 마쳤다. 국내외로 190여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하였고 서울에서 흥정용 의대 총동창회장, 신찬수 의대학장,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과 김연수 부병원장, 감사로 참석한 여러분의 교수진들이 서울에서 참여했다. 한국의 의학발전을 미국에 소개했으며 많은 미주 동문들과 허심탄회하게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젊은 세대의 동문들 (Green Project)이 참여하여 보여준 적극적인 연구발표는 우리 동창회의 앞날에 희망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의대 총동창회에는 115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근래에는 뜻밖에도 미국으로 이주



하는 젊은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의료제도의 변화로 더 많은 동문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윤상래 님, 차기회장 신응남 님, 전 12대 회장 오인환 님이 함께 축하의 인사와 따뜻한 교류를 가졌다. 서울에서 참석한 흥정용 동창회장의 인사말에서 해마다 이 행사에 참여하던 강대회 (87졸업) 전 의대학장이 서울대학교총장에 당선되어서 이번이 없으면 7월부터 직무를 시작한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여 참석한 분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며칠 후 뜻밖에 자리를 사퇴했다는 기사를 읽고 아쉬움이 남는다. 권이혁 전 총장에 이어서 의과대학에서 총장이 되는 것은 수십 년 만이었고 평소에 우리가 알고있는 강대회 교수는 학생들과 젊은 GP 동문들에게 인기가 많은 뛰어난 보

건행정가(이곳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PhD) 이다. 신찬수 학장이 드리는 제4차 행사에서 금년에는 임종식(57졸업), 한기현(63), 김성환(71) 세 분에게 미주함춘공로상이 그리고 김원정(75)에게 학장상 수상식이 있었다. 한승신 회장이 드리는 멘토상의 김의신(66) 교수, 그리고 CME에 도움을 준 신규호 교수(68), 이건일(68) 미주서울의대총동창회 지난해 회장, 김영애 (김성환 부인)수필가님들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친선 골프대회, FDR Home, Library and Museum & Vanderbilt Mansion, Korean Community Center 방문, New York City Tour가 있었으며 이틀에 걸쳐 Banquet에서 장기대회, Line Dance가 있었으며 동문들이 출간한 저서의 판매가 있었다. 문학계와 의학계에 알려진 동문들, 임종식(51입학) 자서전, 한혜원(61) 오페라 전문가, 한수웅(61) 수필가, 강창욱



(61) 영문소설가, 서운석의 시집과 수필집, 천재적인 이원택(71) 미주시인협회 회장의 서적들, 김영애 수필가의 주옥같은 서적들이 동창회 기금을 위하여 판매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 미주 한인들이 당면한 불공평한 Stomach Cancer(위암)의 문제점을 박찬형(62) 동문이 제시하여 오인환(Leadership and Group IQ Institute), 한혜원, 임종식, 한승신, 한수웅 등 여러 연사들이 함께 그 대책을 의논했다. 한인들에게 필요한 매년 EGD(상부소화기 내시경)가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점은 개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현 미국 보험정책으로는 동양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었다. 간염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로 알려진 한혜원(61) 교수가 치료와 연구에 몰두한 수십억의 인구가 해당되는(Asian Population에 많은) Hepatitis(간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Hepatitis B vaccine과 다른 간염, 간암들의 치료 예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꾸준한 학자들의 연구의 덕분으로 젊은 한국사람들은 이제는 H-B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아 희망적이지만 중년 이후의 미주에 거주하는 수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전염성이 있는 보균자이라는 놀라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감염자들은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간경화증과 간암으로 진행된다. GP 감사진의 Program에서는 Yale 대학의 호흡기내과 강민중 교수의 '담배흡연과 Mitochondrial Damage, COPD, Ageing' 연구를 비롯하여 남명호, 오무연, 박종철, 남영제, 서귀숙, 신제현, 윤정현, 손경민, 이준규 등 뛰어난 국내 외 명문대학의 강사진들의 귀중한 학문적 발표가 있었다.

Non CME 강의실에서는 은퇴한 동문이나 같이 참여한 배우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강좌에는 서울대에서 인문학을 연구한 최도빈 교수가 1776년 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시작으로, 철학에서 떨어져나온 경제학의 발전, Adam Smith의 국부론, 산업 혁명,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왕정에서 벗어나는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강좌가 있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시인이자 수필가인 이원택의 "의사들의 외도", 김영애 수필가의 "수필이란 무엇인가", 한혜원 동문의 "오페라 감상", 서정훈 님의 "상속법 소개", 서성한 공학박사의 "스마트폰 사용법", 최광휘 성형외과 전문의의 "Ageing Face 성형에 대한 강의", 작년에 이어 Joshua Grayson 음악박사의 "George Gershwin's music & New York City"라는 제목의 연주와 소개가 있었다. 모든 강의가 매우 흥미로웠으나 그중에서도 역사에 조예가 깊은 온기철(71) 동문이 발표한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 이야기는 많은 청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아직도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미국과 북한의 회담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정치적인 변화를 보면서 평화를 갈망하지만 또 한편 오천년 역사 중에서 처음 이룩한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온기철 동문이 이날 보여준



각 committee 책임자들: 이만택, 이건일, 주광국, 신규호, 이태안, 서운석

1860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괴롭고 창피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18세에 무과에 급제한 육체와 정신적으로 사고방식이 뛰어난 서재필 박사는 대부분의 개화파와 같이 종로구 화동(구 경기고등학교 자리)언덕에 살다가 김옥균과 같이 갑신정변에 무관책임자로 가담했다. 그러나 3일천하로 그 정변이 실패하여 삼족의 멸함을 받았다. 이때 노비가 업어서 탈출시킨 동생의 아들 서찬석 (전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서희원 교수의 부친)만이 생존 했다. 서재필은 자객들을 피해서 서광범과 같이 일본을 거쳐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남들과 달리 투지력이 강하여 막노동도 감수하며 살아 남았다. 그 후 미국에서 우리 민족으로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의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10여년 후 정권의 변화로 고종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미국시민으로 안경을 쓰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고종황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등 개화에 앞장을 섰던 선각자였다. 미국정부의 각료였던 우정국장의 마부로 일을 하다가 그 집의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되어 두 딸을 두었으며 해방후 하지중장의 초청으로 (안재홍 군정청 장관)군정청시절 그의 사랑하던 조국을 위하여 일했다. 그는 독립운동에 평생을 보냈으며 미국에서 체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유 민주주의사상을 우리 민족에게 계몽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워싱턴 DC의 한국총영사관 정문 앞 동상 참고) 이 점에 대하여서는 곧 따로 온기철 동문의 기고가 예상된다.

이처럼 내용이 다양하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모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한 한승신 회장단(부인 김정아(76), 김대중(76) 부회장을 비롯하여 유영걸(76) Convention Chair님, 남명호(81) Scientific Chair님, 남영제(94) 교수, 신규호(68) 교수 그의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물심으로 헌신하신 국내의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제 36차 행사는 정균희(72) 신임회장단에 의하여 2019년 3월 21일부터 Pacific Palm, LA, California (2017년 3월과 같은 장소)에서 열릴 것이다. -글: 편집인 서운석

##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참석 후기

미국에 와서 지낸 지가 벌써 16년 째 되지만 아직 한 번도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동창회장님의 연락과 그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선규 선배의 성화에 못이겨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열렸던 연례 미주동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어쩐지 오래된 숙제를 못하고 있다가 늦게라도 그 숙제를 마치겠다는 각오로 시카고에서 비행기로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는 제가 아는 분이 딱 두 분(이선규 선배, 동창회장님) 밖에 계시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2박 3일을 보내고 떠나는 날에는 아주 많은 선배, 후배님들과 정도 들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후배님들을 보니까 내가 지나왔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잠시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선배님들은 애정과 따뜻한 함으로 후배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포근하고 아늑함을 느껴서 좋았습니다. 특히 밤늦도록 서로 와인 잔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미국이지만 참 고향에 온 듯한 느낌도 잠시 들었습니다. 학술대회는 청중들이 다양한 분포를 보여서 일관된 주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주제나 각 연자의 발표 수준이 어느 학회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교에서 오신 신찬수 학장님, 김연수 부원장님 그리고 제 동기 김종일 부회장 등은 제가 학창시절 및 서울에서 수련받을 때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보게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옛 추억은 항상 그대로 그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린프로젝트에서 추진한 패널 토의에 참석했는데, 이번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잘 된 행사 중의 하나였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서울에 계신 후배님들과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도는 인터넷의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연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동창회도 이런 새로운 기획을 좀 더 많이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의대 동창회에 가서도 항상 느끼고, 그리고 이번에 미주 동창회에서 보았지만, 연배가 드신 선배님들이 보여주는 동기들 사이의 우정과 친목에 항상 감동을 받고 우리 후배들이 많이 본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서로가 가족처럼 같이 모여서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우리 동기들도 저 선배님들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말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처음 알게 된 선배님께서 시카고에 오신다고 해서 만나 빌 계획인데, 이렇게 처음 참석한 학술대회이지만, 그 결과로 알게된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질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신 후배 강민중 총무님, 학술대회 준비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 애쓰시는 한승신 동창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박계영 (1990년 졸업)

# 2018년 제35차 학술대회 화보



학술대회에 참석한 동문들과 강사들



만찬 시작전에 교가를 제창하는 동문들과 장기자랑, 흥겨운 시간들





오랜만에 함께한 동기와 동문들과





노영일 (68, 시카고)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의 엔진을 켜자 은방울을 굴리는 듯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온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아!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상쾌한 기분으로 하이웨이를 누비며 달렸다. 그러자 음악이 끝나고 어나운스가 나온다.

“고전음악(클래시칼 뮤직)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여기는 시카고의 유일한 고전음악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음악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송국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얼마를 기부하셨다고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고 자기가 이 방송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음악은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한다. 생방송에 계속 전화가 온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디스크 버튼을 누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직장까지 갔다.

사실 내가 시카고에 처음 왔을 때는 고전 음악방송국이 세 군데나 있었는데 하나하나 문을 닫고 이제는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다. 내 차는 아예 고전음악 방송주파수에 고정을 시켜놓았다. 어쩌다가 아이들이 놀러와서 내 차를 쓰거나 으레히 주파수가 팝뮤직에 가 있어 질겁하고 다시 본래대로 해놓곤 한다.

세 딸은 음악대학을 나왔는데도 보통 때는 팝뮤직이 좋은 모양이다. 신호등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

선에 젊은 애들이 탄 무개차가 와서 밟는다. 쿵쿵쿵쿵하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청진기로 심장박동을 듣는 것 같다. 나는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하고 자세히 보니 젊은애들이 그 박자에 맞추어 몸짓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음악이라고 듣는 것인가?

시카고 리릭오페라에서 또 씨즌 티켓을 사라고 편지가 왔다. 아내가 음악을 좋아하여 오페라는 꼭 봐야 되겠다며 아주 드물게 부리는 옹고집으로 매년 표를 사곤 한다. 시카고에 살며 오페라도 안보면 수치란다. 나는 하루 종일 심신으로 시달리다 저녁 때 오페라하우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으로 즐음과 싸우는 일이 더 당연한 현실이다. 음악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고 어쩌다가 음악이 끊기면 잠에서 벌떡 깨곤 한다. 아내는 “당신은 일본에 얼마씩 내고 잤는줄 알아?” 하고 핀잔을 준다. 귀에 익은 아리아가 많이 나오고 템포가 빠른 오페라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는데, 무대장치도 단순하고, 아는 아리아도 안 나오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은 여주인공을 앞에 놓고 아름답다, 너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음악을 들으러 왔다고는 하지만 그 분위기도 나에게에는 중요할 듯 싶었다.

주위의 관객들을 훑어본다. 젊은이들은 가불에 콩나기로 보이고 거의 모두 머리위에 서리가 내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평균 연령이 60 내지 70은 족히 될 것 같다. 모두 교양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듯 보였지만 세월의 흔적만은 감출 수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저승가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사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한, 이곳에 비싼 돈을 내고 들어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젊은이들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요즘은 뉴욕 메트로 오페라공연을 고화질 영상으로 실시간에 중계를 하는데 동네극장에 가서 보면 된다. 노래를 육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오히려 가수들의 표정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막간에 설명도 해 주고 무대 뒤의 모습도 보여주어 더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위 관객을 둘러보면 사회보장금을 받을 나

이의 노인들밖에 없다. 그나마도 관객석이 반도 차지 않는다. 입장료가 비싸지도 않은데 젊은이들이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옆방에서 상영하는 영화에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댄다.

내 딸 셋은 음악대학을 나왔다.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딸들은 음악이나 미술을 하면 시집을 잘 간다고 믿었다. 어렸을 적부터 아내는 이곳저곳으로 레슨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나보다도 더 바빴다. 결국 셋 다 우수한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음악대학을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요즘같은 맞벌이 세대에는 자칫 나오자가 되기 쉽다. 요요마같이 되려면 그야말로 백만에 하나 있을 행운이다. 오케스트라는 누가 한 명 죽지 않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어쩌다가 요행으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도 재정난으로 해체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는 예도 여러번 보았다. 중고등학교 음악선생자리도 얻기가 힘들다.

음악대학시절 딸들의 학교를 여러번 방문하였었다. 하루에 예닐곱 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 일반 공부도 하여야 한다. 의과대학공부 보다는 더 어려워 보였다. 모두 음악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 졸업연주회에 갔더니 가족과 지도교수, 가까운 친구 몇 명이 관중의 전부였다. 결국 딸들은 모두 다시 다른 대학에 들어가니 부모인 나는 이중삼중으로 등록금을 부담하느라고 허리가 휘청했다.

내가 일하는 병원과 우리 집 중간쯤에 트위터라는 야외 팝뮤직 공연장이 있다. 그 옆에 골프장도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 공연이 있을 때면 어쩌나 소란스러운지 게임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퇴근시간에 집에 오려면 하이웨이가 차들로 꽉 들어차서 마치 주차장같이 되어 한참 우회해서야 집에 오곤 한다. 한 번 공연에 족히 수만 명은 동원되는 것 같다.

또 시카고에서는 매년 여름 3일간 Lolapalooza라는 팝뮤직 페스티벌을 하는데 매년 연 20-30만명이 다녀간다고

A Day

Young C. Shin (59)

Morning, daytime, evening, night is our 'A Day'

Waxing, full, waning, darkness is moon's 'A Day'

Spring, summer, autumn, winter is trees' 'A Day'

No beginning, no ending, eternity is God's 'A Day'

한다. 타 주는 물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와서 구경을 한다. 병원의 동료 의사인 한 친구가 3일간 사라져 어딜 갔다가 왔냐고 물었더니 Lolapalooza에 다녀왔다고 한다. 늙은이가 망녕도 분수가 있지 거기가 어디라고 갔었느냐고 했더니 젊은이들 틈에 끼어 크레이지하게 노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고 한다. 모두 한바탕 웃었다. 그런 젊은 애들을 오케스트라 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 몇 시간 동안 앉혀놓으면 아마도 발산하지를 못하는 에너지로 발광을 하거나 혼절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로 써베이를 했더니 오보나 바순은 고사하고 클라리넷이 관악기인지 현악기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도북했고, 첼로가 관현악단에서 가장 큰 악기라고 한 사람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전음악은 노인들의 음악인가? 지금의 고전음악 팬들이 다 죽고 나면 누가 들어 줄 것인가? 트위터나 Lolapalooza같은 팝음악에 몰두어 있는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고전음악을 즐길 것인가? 선호하는 음악은 연령에 따른 기호의 차이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따른 차이인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뿐이다. 미국에서 고전음악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음악이여 영원히!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의과대학 관련) 보고

미생물학 유인경 교수 기금

유인경 교수 기금은 59년도 졸업 고 유인경 동문을 위하여 부군 광노섭 박사와 가족이 90만 달러를 기부하여 세운 기금입니다. 고 유인경 동문은 졸업후 미생물학교실에서 연구하여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도미후에도 미생물학 연구를 계속 하였습니다. 매년 3만 달러를 미생물학 연구 교수에게 지급됩니다.

광노섭 박사님은 기금 교수가 4년 계속 연구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유인경 교수기금 3만달러를 수령한 교수는 미생물학과 교실 김동현 교수입니다. 김교수는 서울대 공대 공학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미생물전공 이학사, 이학박사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미생물실 교수입니다.

김현 병리학 연구기금

66년도 졸업 김현 동문이 50만 달러를 기부하여 세운 기금입니다. 매년 5만 달러로 2명의 교수에게 각각 2만5천 달러씩 수여하게 됩니다. 김현 동문은 Hematology Pathology와 Colon cancer pathology 관련 연구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학기 의대에 지급되는 장학금

- 김용재(66) 장학금: 2만 달러
- 김기태(58)-노정옥 장학금: 1만5천 달러
- 이만택(58)-이안나 장학금: 7천5백 달러

2018년도 의대에 지급되는 연구 및 교육기금

- 이홍표(64) 순환기내과 교육기금: 2만 달러
- 김기태(58) 병리학 연구기금: 2만 달러
- 김의신(66) 핵의학과 학술기금: 8천 달러
- 김 현(66) 병리학 연구기금: 5만 달러
- 유인경(59) 미생물학 연구기금: 3만 달러

의대관련 미주재단 기금

김현 병리학 연구기금, 유인경 교수기금, 김의신 핵의학과 교육기금, 이홍표 순환기내과 교육 연구기금, 김용재 장학기금, 김기태-노정옥 장학기금, 이만택-

이안나 장학기금 등 총 262만 달러가 현재 미주재단에서 투자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으로 매년 장학금 및 연구기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문의: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768-9144 Fax 212-768-4494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IRS에서 인가된 비영리자선단체로 기부금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IRS ID 26-261-53290)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 제공

JAE PIL LEE (51) M.D. OBITUARY



Jae Pil Lee, 92, a longtime resident of Silver Spring, Maryland, USA, died peacefully at home on Monday, May 28, 2018. He had been diagnosed with Alzheimer's in 2005. Dr. Lee was born in Hongseong, Chungnam Province. He was a graduate of Chung A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Preparatory School of Kyungseong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lass of 1951. Upon graduating, he served in the Republic of Korea 5th Army Hospital, 98th Army Hospital, and 116th Army Hospital, specializing in chest disease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in 1957, he trained as a resident in internal medicine at hospitals in New York City and New Jersey. While awaiting U.S. citizenship, he completed a residency in anesthesia at McGill University in Montreal, studying under Dr. Philip Bromage, who pioneered the lumbar epidural technique. Dr. Lee taught anesthesia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went on to private practice as an anesthesiologist specializing in obstetrics in several Washington, DC area hospitals, in a career that spanned over thirty years.

He was a parishioner of St. John the Baptist Catholic Church, and a golf member at Indian Springs Country Club. In retirement, he enrolled in the Fine Arts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uditing several degrees' worth of painting and sculpture courses. He is survived by his wife of 52 years, Catherine M. Lee; son Daniel [Ayumi]; daughters Tania [Hugh Morris] and Shana [Carl Hendley]; and four granddaughters.

# 알뜰한 납세자

허선행 (64, 대뉴욕)

사노라면 누구나 여유있게 잘 살고 싶지, 가난으로 고통과 천대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겠다.

그런데 고금을 통해서 사회 구조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니면 상류 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데 누구나 재벌이나 억만장자가 되고 싶겠지만 사실 재벌이나 억만장자는 대개 인구의 몇 %에 불과하고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것이 진정코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이럴수록 빈곤층이 적어 지니 이런 현상이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내가 어려서 종종 들은 말에 의하면 있는 사람들 특히 중국 부호들은 돈을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 둔다고... 말하자면 남한테, 특히 정부기관 그리고 자식들이나 부인한테도 비밀로 했다나.

물론 세금을 피하는 방법의 하나이었겠고 도둑이나 강도에게 뺏길 염려도 없고 자식들이 훔쳐가거나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는 것도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현대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콧방귀 끼면서 바보 같은 짓(so stupid)이라고 빈정거릴 것으로 본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대 세계경제의 주축이 되는 투자에 눈먼 큰 돈 벌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비판도 받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세금 특히 개인소득세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늘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다. 진정코 세금을 정직하게 제대로 다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을까 상상해본다.

나 자신도 벌어드리는 돈의 액수는

뻘하고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었거나 될 것이니 그 액수를 줄이거나 속일 수도 없으니 세금 공제사항(Itemize)에 안간 힘을 써봤자 몇 푼이나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미국 땅에서 제일 무서운 정부 기관의 하나는 경찰이나 FBI가 아니고 바로 국세청(IRS)이라고, 그래서 안냈거나 못낸 세금 받으려고 무덤까지 찾아온다고 하지 않던가!

이것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선거 때마다 세금 깎아준다는 구호, 표를 더 얻으려면 못할 구호가 어디 있겠소이까! 그러면 그동안 낸 세금은 과잉 징수로 흥청망청 낭비했다 말인가! 하기가 1불이나 0.001% 깎아 주어도 깎아주는 것 아니겠소.

사실 내가 세율, 세법 국가경제, 나라간의 수출입 균형 등등에 대해 무엇을 알겠소만 최근에 아주 뛰어난 그리고 성공한 분들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된 몇가지를 말하고 싶어졌다.

이 분들의 생활을 보니까, 집에는 도우미가 와서 청소해주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가며 자동차는 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그리고 비싼 Health Club에 가서 씻고 닦고 또 Gym에서 운동을 하며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받는 등 아주 여유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들 중의 몇 분은 Food stamp, SSI card를 매달 받고 Medicaid가 있으며 사는 집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나.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나도 쓸개가 있다고 무엇인가 잘못된 세상에서 사는 기분이 들었다. 자식들한테 모든 공들여 성공시킨 후 이제는 있는 자산 다 건네주고 빈털털이로 행세하며 그동안 정부에 바쳤던 세금 돌려받는 아주 현명하고 알뜰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옳은 판단은 아닐 것 같다.

대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부에서 도움받는 부유층이 우리 한국인보다는 머리 좋고 약삭빠른 다른 민족에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두렵다.

# 굴

# Oyster

서윤석 (68, 버지니아)

Seo, Younseok (68)

돌인 듯 보였구나  
돌이 되었구나  
무색의 피를 뿜어내는  
튼튼한 심장이 있어  
모진 풍랑을 견디었구나

you look like a stone  
you are a real stone  
you endured all those heavy storms  
with your strong heart  
that pumps pure blood

모래를 품어  
소금을 씻고 씻어  
진주를 만들어낸  
하얀 근육에서는  
갈매기가 춤추는  
바다 냄새가 난다

you embraced a piece of sand  
and washed away its salt  
creating a shiny pearl  
your muscle smells the ocean  
where seagulls dance

눈도 귀도 없이  
십만 년을 살아  
돌부처가 된 너  
입은 이끼웃이  
함께 돌이 되었구나

without any eye or any ear  
you have survived a hundred thousand years  
to transform into a stone  
you became a Buddha of stone

침묵과 믿음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도  
향기만 모아온 너  
돌인 듯 보였구나  
살아 있는 돌이 되었구나

with your silence and belief  
deep inside the dark ocean  
you collected only fragrance,  
became a stone, the living stone



## 제15회 장기려의도상 및 제22회 함춘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 □ 장기려의도상

1. 시상 인원: 1명(단체포함) [상패와 금메달 또는 연구비 2,000만원]
2. 수상대상 업적:
  - ① 동창회 소식지 또는 각종 방송, 신문 및 전문지에 보도되었거나,
  - ② 언론보도는 없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숨겨진 업적으로 알려진 사실
  - ③ 다만 그 업적은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5년 이상 꾸준히 이룩한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도되었거나 알려진 내용
3. 수상후보자의 자격:
  - ① 현재 생존 본회 국 내외 회원 또는 회원이 속한 단체
  - ② 만 65세 미만(추천 마감시). 단, 해당 업무 현역종사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음.
4. 수상후보자의 추천: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인은 수상대상 업적이 심사에 참고할수 있는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

### □ 함춘학술상

1. 수상인원 및 연구비
  - ① 수상인원: 연구업적 3명 범위내
  - ② 연구비:
    - 함춘의학상 및 함춘젊은연구자상: 각 1천만원(연구업적부분 각 1명)
    - 함춘동아의학상: 3천만원(연구업적부분 1명)
2.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심사대상
  - 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정회원으로서 국내, 국외 의학교육기관, 의학연구기관, 보건의료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회원
  - ② 최근 5년 이내 발간 저서 또는 2년 이내에 학술전문지에 발표된 논문
  - ③ 함춘젊은연구자상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하 또는 졸업 후 15년 이하인 자(2004년 이후 졸업)
3. 수상후보자의 추천:
  - ① 국내회원: 본회 각 지회장 또는 각 동기회장이 추천
  - ② 미주회원: 미주동창회장이 추천

### 구비서류

- ①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② 이력서 및 연구업적 일람표 각1부
  - ③ 사 진(컬러 명함판) 2매
  - ④ 업적요약서 및 업적관련자료(저서 및 논문별책) 각 1부
- \* 구비서류 : www.snumd.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감일: 2018년 10월 2일(화)까지 동창회 사무국 도착

제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5 함춘회관 7층  
Tel.02)762-9051, Fax, 744-0756 E-mail: snucmaa@naver.com

### 시상일시 및 장소:

- 함춘송년의 밤 행사 석상 (롯데 호텔)
- 2018년 12월 18일

(재)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 학술연구재단 이사장





# 보여주고 싶은 욕망

서 랑 (69, 대뉴욕)

프랑스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1901~1981)이 설파한 “응시(gaze) 이론”의 핵심은 이렇다. --- 생후 한두 살짜리 아기가 물끄러미 거울을 응시한다. 그는 호기심에 매료되어 애를 태우다가 거울 속 영상이 저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지한다. 아기는 나중에 거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감지하면서 그 사람의 눈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좋은 버릇을 키운다.

아기가 기어가는 동안 의자에 부딪치지 않는 것도 당신이 전봇대와 충돌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것도 다 이 “응시” 덕분이다. 라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강력한 힘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상대를 응시할 때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같은 시대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는 그의 저서 “임상의학의 탄생(1963)”에서 “의학적 응시”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환자는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의학이라는 거창한 지식을 대변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긴다. 이때 “응시”는 단순한 시각적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힘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을 조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옛그제 직장 동료와 함께 어느 소문난 레스토랑에서 만나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람들이 여러 테이블에 다소곳이 앉아있었지만 실내가 묘지처럼 적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각자가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

조너선 스위프트(1667~1745)의 “걸리버 여행기” 3부에 나오는 “하늘을 떠다니는 섬나라(Laputa, Floating Island)”가 떠오른다. 그곳의 귀족들은 늘 고

개를 한쪽으로 가우뚱하게 기울인 채 깊은 사색에 잠겨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인들이 막대기 끝에 달린 바람주머니로 귀와 입을 두들겨 줘야 한다. 심오한 상념에 빠져서 하인을 대동하지 않고 달랑 혼자 외출했다가 그들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기를 잘한다. 스마트폰에 심취한 현대인들이 텍스트를 찍으며 걸어가다가 맨홀에 떨어지거나 달리는 차에 부딪치는 사태와 너무나 흡사하다.

스마트폰 없이는 한시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은 무엇에 몰두하며 지내는가. 하인들에게 바람주머니로 얻어맞는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왕성한 두뇌활동으로 사색을 추구하는 그들에 비하여 컴퓨터 테크놀로지 중독환자들인 우리는 대화의 부재 현상과 소외감에서 ‘SN S’의 거미줄에 얽혀 몸부림친다. ‘SN S’는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default setting (기본 설정)’으로 삼는다.

보여주고 싶은 욕망은 보고싶은 욕망과 결탁한다. 급기야 노출증과 관음증은 야합한다. 욕망의 주변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따라다니 듯 노출증의 대담성은 수줍음의 안쓰러움과 일심동체가 된다. 보여주고 싶은 욕망은 초미니 스커트처럼 감추고 싶은 욕망과 자지러지게 공존한다.

‘gaze(응시하다)’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어나 스웨덴 말로 ‘입을 벌리고 바라보다(gape)’, ‘멍청하게 바라보다(gawk)’에서 유래했다고 추정된다. 응시(凝視)의 ‘응’도 옥편에 ‘엄길 응’이라 나와있고 응고(凝固), 응집(凝集)에서처럼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 얼어붙다’는 뜻이란다.

사람이 사람을 응시한다는 것은 입을 딱 벌리고 멍청하게 바라보며 두 영혼이 한 덩어리로 굳어지며 얼어붙는 시적(詩的) 상황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눈빛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안간힘이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끌림이다.

- 뉴욕 중앙일보 2018년 6월 27일  
서랑의 고정 칼럼 <잠망경>에 게재

<전면에서 계속> 한국인으로 최고의 계급인 중좌까지 하고 해방이 되어서는 군사영어학교에 입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귀여움을 받아 헌병사령관(중장)으로 정치공작·민간인학살 등에 깊이 개입했으나 남로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박정희 씨를 구해줘서 5.16 후 특사로 풀려났던 ‘정치 장군’.

6) Mengele, Josef: 요제프 멩겔레, (1911~1979), 독일의 뮌헨 의대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6세 때 군 의관으로 차출되어 32세 때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의료반장을 지내면서 무고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는가 하면 유전학을 연구한답시고 수많은 ‘죄수’들을 도살하여 <죽음의 천사>란 별명까지 들었는데 종전 후 나치 사냥꾼들에게 쫓겨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잘 살다가 67세에 수영하다 뇌졸중으로 사망한 히틀러의 친위대 요원.

## 남의 삶을 맛보고 싶은 바람끼를 딴 곳으로 옮겨 놓은 도사들

1) Locke, John: 존 로크, (1632~1704),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Oxford에서 실험철학을 공부하다 주위에 의사 친구들이 많은 덕으로 34세 때 한 백작의 간 종양을 수술하는 것을 주도 하고나서 의학에 매료되어 45세 때 정식으로 의학박사가 된 후 그 백작의 주치의로 비교적 유복하게 살고 평생 독서와 저작에 전념할 수 있었던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사회계약설의 신봉자.

2) Grew, Nehemiah: 네헤미아 그루, (1641~1712), 영국의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나 31세 때 의사가 되어 열심히 환자를 보면서도 현미경을 이용해서 식물의 미세기관 특히 꽃의 생식기관을 발견한 식물해부학의 아버지로 손금·발금을 보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던 자질구레한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

3) Galvani, Luigi: 루이지 갈바니, (1737~1798), 금 세공사 아버지의 설득으로 신학을 포기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죽은 개구리의 근육을 전기로 자극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생체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탈리아의 의학자·물리학자로 그 후 사람들이 금속을 자극(도금)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galvanize 라고 명명했다. 여러분도 의학을 예술로 galvanize 하면 더욱더 튼실하며 빛이 나는 인생을 ‘영구하게’ 살 수 있을지 나....

4) Keats, John: 말구종의 아들로 태

어나 조실부모하고 외과의의 조수로 일하다가 의과대학은 졸업했으나 시에 대한 열정으로 고민 끝에 21세 때 의업을 포기하고 시작에 정진해서 예리한 상상력을 동원한 송시(odes)에 능했으나 25세 때 결핵으로 요절한 영국의 제2세대 낭만파 시인으로 그가 만약 건강에 자신이 있었으면 의업과 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열과 소질이 있었는데 아깝게도 중도하차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5) Seo, Jae-Pil: Philip Jaisohn, 서재필, (1864~1951),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3살 때 왕 앞에서 실시된 전강에 장원한 수재로 19세 때 약 1년간 일본 육군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여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실패해서 가족을 잃고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후 28세에 George Washington 의대를 졸업해서 30세에 상류가정의 백인 여자와 결혼했다. 31세 때 귀국해서 독립협회·독립신문·독립문을 만드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34세 때 다시 미국으로 추방되어 병원 서기와 연구원 등으로 일 한 후 인쇄업자로 돈을 벌었는데, 31운동 후 미국 내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신문을 발간하는 등 재산을 날려 60이 넘는 나이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세균학·병리학 의사로 일을 했고 해방 후 82세 때 귀국해서 이승만 박사와 절그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군정의 고문으로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하다 82세 때 심장마비를 앓고 미국에 돌아가 86세에 필라델피아에서 사망한 독립운동가로 그는 정치가 본업이고 의사는 생계를 위한 부업에 불과했으므로 열불보다는 깃발에 더 관심이 있었으나 명예 욕보다는 성취욕이 더 강했던 분으로 좌우간 머리 하나는 비상했던 모양이다.

6) Choi, Shin-Hae: 최신해, (1919~1991), 국문학자 최현배 님의 3남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청량리 뇌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해학적인 수필을 써서 ‘의사 수필가의 원조’로 불리는 사람으로 한번은 병원 변소에서 같이 오줌을 누다가 옆에 있는 학생에게 “똥 나올까 봐 방귀는 연구실에서 쥐고 왔지!” 하더라. 그의 글이나 표정에서 보듯이 인생을 유쾌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간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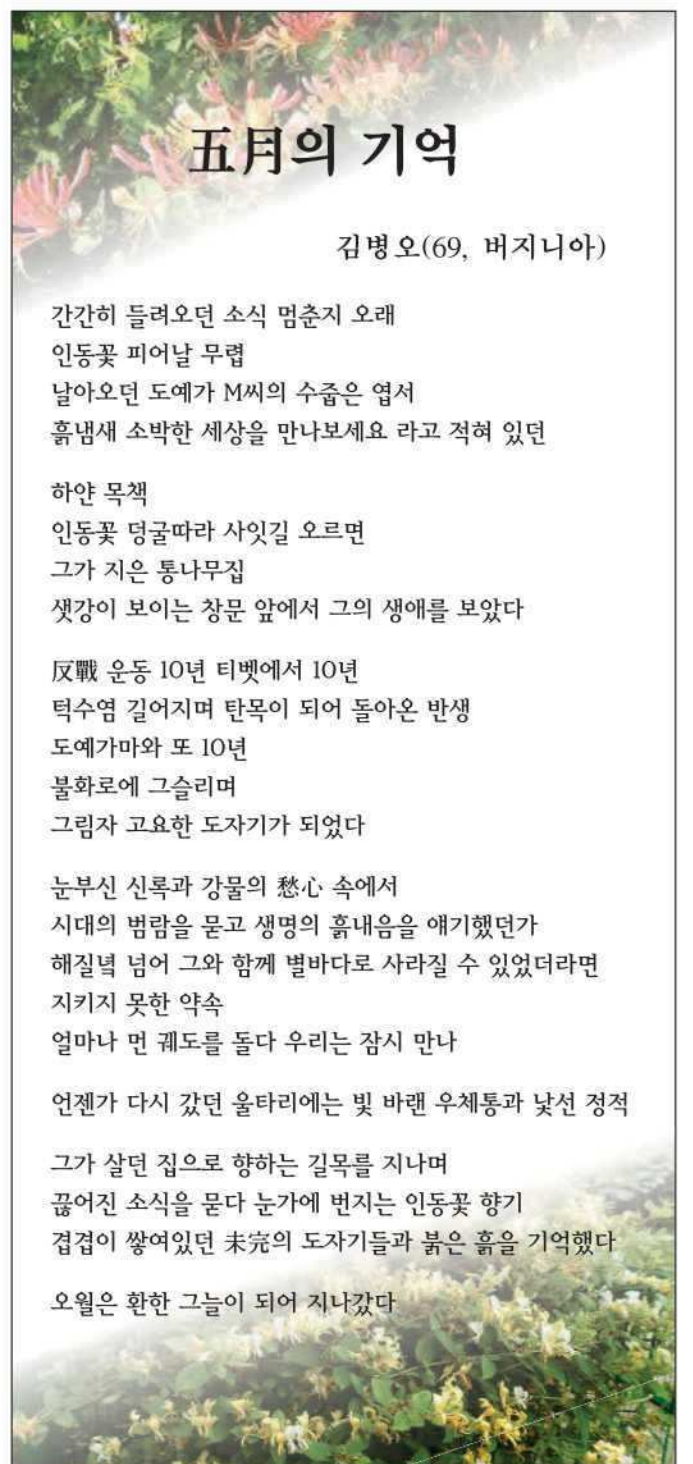
7) Nelson, Lee ‘final table’: 리 넬슨 ‘막판 도박가’, (1943~ ),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의업을 했는지는 모르나 2004년부터 직업적 포커 노름꾼이 되어 ‘막판을 뒤엎는’ 재주로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2백만 불 이상을 따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장수를 위한 영양·건강보 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나이.

8) Hong, Kuhn: 홍건, (1945~ ),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으나 아버지가 아픈 것을 보고 서울대 학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어 핵의학·방사선과 전문의로 미국 시카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해외의료선교에 참여한 후 은퇴하고 나서 에티오피아에 정착했는데 그는 이왕 봉사를 하려면 잠깐잠깐 문전만 더럽히는 단기 의료 봉사로는 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림을 통한 대화 등으로 이방인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환자와 일심동체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9) Hong, Hae-Gui: 홍 해 결, (1967~ ), 서울의 대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에 의학전문기자로 들어가 마스크를 타면서 매끄러운 매너와 ‘흰철한 인물’로 인기를 끌고 현재 프리랜서 의료해설자로 일하면서 의학책널사장으로 사업가로 변신해 보려는 ‘한국판 산제이 굽타’.

10) Gupta, Sanjay: 산제이 굽타, (1969~ ), 인도에서 이민 온 기사출신 아버지를 두고 미국 미시간에서 태어나 미시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해지역에서 일하다가 ‘흰철한 인물’ 덕택으로 마스크에 픽업되어 의학전문기자·의료해설자로 각광을 받고 Emmy 상을 받는 등 명사가 되어 오바마가 미국 연방정부



# 五月的 기억

김병오(69, 버지니아)

간간히 들려오던 소식 멈춘지 오래  
인동꽃 피어날 무렵  
날아오던 도예가 M씨의 수줍은 엽서  
흙냄새 소박한 세상을 만나보세요 라고 적혀 있던

하얀 목책  
인동꽃 덩굴따라 사잇길 오르며  
그가 지은 통나무집  
셋강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그의 생애를 보았다

反戰 운동 10년 티벳에서 10년  
턱수염 길어지며 탄목이 되어 돌아온 반생  
도예가마와 또 10년  
불화로에 그슬리며  
그림자 고요한 도자기가 되었다

눈부신 신록과 강물의 愁心 속에서  
시대의 범람을 묻고 생명의 흙내음을 얘기했던가  
해질녘 넘어 그와 함께 별바다로 사라질 수 있었더라면  
지키지 못한 약속  
얼마나 먼 궤도를 돌아 우리는 잠시 만나

언젠가 다시 갔던 울타리에는 빛 바랜 우체통과 낫선 정적

그가 살던 집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나며  
끊어진 소식을 묻다 눈가에 번지는 인동꽃 향기  
겹겹이 쌓여있던 未完의 도자기들과 붉은 흙을 기억했다

오월은 환한 그늘이 되어 지나갔다

의무총감 자리를 제안했으나 타의반자의반으로 사양하고 애프터에서 신경외과 조교수로 일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의사출신 ‘인기 배우’.

11) Jeong, Ken: Kendrick Kang-Joh Jeong 켄 정, (1969~ ), 한국계 2세로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해서 1995년 North Carolina 의대를 졸업한 후 일반내과 전문의로 Kaiser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1997년부터 만담가·배우로 은막계에 데뷔한 후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투신해서 <의사 이야기>를 위주로 한 각본·제작자로 변신해 가고 있는 ‘홍행업자’.

이 세 사람은 19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까지 다사다난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민비가 어떻게 시해를 당하게 되는가에 맞추었습니다. 민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원군과 개화당을 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일본과 결탁하여 민비를 제거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개화당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고 미국시민이 되어 생애를 마친 분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그 시기에 어떻게 인생을 꾸려갔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세기 중엽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1840~1860년 사이에 벌어진 1, 2차 아편전쟁은 세계의 질서가 중화-오랑캐 구도에서 문명-야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농경사회를 이룩한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최강국이었고 세상의 중심은 중국(중화)이고 다른 나라는 모조리 오랑캐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구조의 하나로 중주국-종속국 관계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계몽사상과 산업혁명을 거쳐서 근대국가로 변신합니다. 중국의 낡은 제도는 부패해 갔고 산업화된 신흥 구미국가들은 문명국-야만국 구도를 앞세워 침략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문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스려야 한다는 이론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했습니다.

쓰러져가는 공룡 중국은 구미국가의 이권 찬탈로 외환을 잃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안으로는 수많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난리가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홍수환은 자신이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자 칭제하고 예수교의 평등교리를 앞세워 남녀평등, 토지균등 분배 등을 주장하고 약 14년 동안 중국의 거의 반을 지배했던 사건입니다. 이 난을 제압한 인물이 이홍장입니다. 이 공으로 이홍장은 청나라 황제 다음으로 높은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청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를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지식과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민비-온건 개화파가 이 양무운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명치유신을 단행합니다. 쇼군이 통치하던 막부정권은 천황을 정권의 전면에 내세워 입헌 군주제도를 도입하고 군사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서양과 똑같은 나라를 만드는 개혁을 했습니다. 양무운동이 절름발이 개혁이었다면 명치유신은 완전무결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조선의 급진개화파는 명치유신같은 개혁을 조선에서도 이룩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와같이 중국의 이홍장,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할 무렵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합니다. 1800년 정조의 죽음은 조선을 망국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실학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 정조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60여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씨 왕조라기보다는 김씨 왕조였습니다. 대원군은 이씨 왕권을 되찾으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철종이 죽을 무렵 안동김씨와 대립관계에 있던 조대비(선정왕후)와 접촉하여 12살 난 자기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옹립하고 자신이 섭정에 나섭니다. 1864년 1월 이었습니다.

정권을 거머쥔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한 부당한 세금제도를 바로잡고 매관매직을 금지했으며, 봉당의 진원지이고 백성을 괴롭혔던 서원을 철폐하여 백성들의 삶이 많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단순히 영, 정조 시대를 회복하

장희빈의 음모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숙종비 인현왕후 집안인 여흥민씨 민치록의 딸이었습니다.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자매, 부모 등 친척이 없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고 대원군의 부인과 같은 집안인 여흥민씨를 택한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15세, 민비는 16세였으나, 민비의 권력욕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머리

승호를 비롯한 일가가 사망했습니다. 대원군의 형 흥인군 집에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원군 집에 머물렀던 식객이 주도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집권한 고종과 민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통상조약인 병자수호조약을 1876년에 일본과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독한 불평등조약으로 일본의 권리만 명시하고 조선의 권리나 일본의 의무는 전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민비의 또 하나의 정적 개화당의 탄생**

제너럴 셔만호 사건 때 평양감사로써 대포와 총으로 무장한 미국 상선을 제압했던 박규수는 개화당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그의 생각은 이홍장의 양무운동과 같이 전통적인 유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고 서양문물을 받아들여자는 온건개화파와 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반 세도가들의 자식들을 자기 집에 모이게하여 북경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서양문물과 책을 소개하는 등 서양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김옥균, 유길준, 박용효, 박영교, 홍영식, 김윤식, 서광범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그중 김옥균이 이들의 보스였습니다. 그는 노론계 안동김씨 김병기의 양자였습니다. 시문, 글씨, 그림에 뛰어났고, 매우 사교적이어서 위로는 정승 판서와 친했고 아래로는 시정잡배와 어울렸다고 합니다. 가무, 음주, 주색잡기, 바둑, 투전, 골패에도 탁월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박규수는 그에게 중화사상이 허구임을 가르쳤고, 개화파들이 청과의 관계 단절을 외치고 다니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영효는 철종의 딸 영혜옹주의 남편이었고 박규수는 고종에게 박영효를 부마로 삼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서광범은 이조참판 서상익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재필: 개화파의 일원이 되다**

1864년 1월 7일에 서재필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고 보성은 그의 외가였습니다. 서재필 부모는 곧 충청남도 논산으로 이사하여 7살이 되던 해에 한양에 있는 6촌 서광하의 양자가 되어 한양에서 살게 되었는데, 서광하의 부인은 안동김씨 김은순의 딸이며 구한말 대신 김성근의 누나였습니다. 서재필이 낳던 해와 달은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한 해와 달과 우연히 일치합니다.

유년기의 서재필은 동료들보다 키가 큰 편이었고 싸움을 잘 했으며 명석했고 자존심이 강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 김성근의 집에서 과거 시험공부를 했는데, 김옥균, 서광범 등이 이 집에 드나들었고 서재필은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옥균은 서재필을 총애했습니다. 김옥균을 통해 박영효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필은 곧 이들과 함께 박규수의 집에 드나들면서 개화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서재필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명문거족의 딸 광산김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옥균이 개화당의 모체인 충의계를 만들자 서재필도 이에 합류했습니다.

**개화파와 봉원사 주지 스님 이동익**

박규수 외에 개화파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봉원사 주지스님 이동익입니다. 그는 일찍이 일본 사찰에 뉘으면서 게이오 의숙에서 개화사상을 <다음면에 계속>

**대원군, 민비 그리고 서재필 (1)**

-2018년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강의 초록-

**은기철 (71, 남가주)**

굴리기는 대원군 못지않았습니다.

1866년 민자영이 왕비가 되던 해는 대원군이 무려 8000명의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이는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 이로운 병인양요, 제너럴 셔만호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흥민씨인 대원군의 부인에게는 민승호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민비는 민승호를 자기 아버지 민치록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자신의 오라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권력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반 대원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조대비와 연대하여 권력을 차지한 대원군은 풍양조씨에게 충분한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성하를 포섭했습니다. 흥선대원군 형 흥인군 이최응도 민비 세력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개혁을 위해서 남인과 북인을 선호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노론계인 안동김씨 김병기를 포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 대원군 세력은 유학자들 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봉당의 아지트였고 백성을 착취하는 전위부대였던 서원을 철폐한 대원군은 유학자들의 원수였습니다.

대원군 섭정 10년, 고종의 나이 22세가 되자, 그중 지도자 격인 최익현을 포섭하여 대원군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 상소는 반 대원군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이것을 근거로 1873년, 대원군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민비가 정권의 전면에서 나 서게 됩니다.

**여흥민씨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반격**

민비의 처가 여흥민씨들은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보다 더 심한 매관매직, 뇌물수수 등 온갖 비리로 권력 유지와 축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민생고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민비와 고종 사이에서 난 왕자와 공주들은 낳자마자 죽거나 병약했습니다. 민비는 이를 해결해 보고자 무당을 불러서 궁중에서 굿을 하거나, 전국 유명한 사찰에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민비는 무당과 사찰에 막대한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민비는 극과 풍악을 좋아하여 거의 저녁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종은 낮에 정사를 보면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국고를 썼습니다. 대원군이 궁중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은 것을 고종과 민비는 적자로 만들었고 이를 메우고자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민비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았고 대원군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대원군은 끈질기게 민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시도합니다. 민비 숙소에서 폭탄이 폭발했지만 민비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물 보따리에 폭탄을 넣어 민승호의 집에도 보내어서 이것이 폭발하여 민

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은 옛것을 복구는 수구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산업사회를 만드는 좀더 진취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명치유신은 물론 대국 청나라의 양무운동보다도 훨씬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쇄국 정책, 제너럴 셔만호 사건과 박규수**

청나라, 조선, 일본은 모두 오랜동안 쇠국이 기본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천주교를 받아들이면 신분제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대원군은 이러한 수구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우선 내치를 안정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다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양국가들의 통상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866년 8월, 대동강 물은 장마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만호는 그 물을 타고 평양성 깊숙이 들어 왔습니다. 상선이지만 대포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해적선으로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이 주민들에게 총을 쏘는 등 폭력을 가하자 분노한 주민들이 관군과 합세하여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어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평양감사 박규수는 화공으로 배를 공격하여 배에 불이 붙자 선원 전원이 불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박규수는 배의 엔진을 노획했습니다. 박규수는 이조참판을 지내는 등 중앙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에서 높은 벼슬을 하려면 지방 근무로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지방수령직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침 중요한 사건이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큰 인물이 평양감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규수는 북학과 실학자인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박규수 또한 배이징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아편전쟁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조선도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화파 육성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이 개화파는 민비의 강력한 정적이 됩니다.



**민비의 등장과 고종 친정 시작**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민자영은 고종의 비가 되어 궁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배웠고 유키치와 개화파 인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동익은 부산 출신이어서 그곳 왜관에 자주 출입하면서 일본인과 접촉하여 새로운 문물과 서적들을 봉원사로 가져왔습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은 봉원사에 드나들면서 이동익이 가져온 것들을 교재로 공부했고 12살 위인 김옥균은 서재필을 이들과 같이 공부하게 했습니다.

**개화파의 승계: 오경석-유흥기(대치)**  
1877년에 박규수가 죽자, 역관 중인 출신 오경석이 개화파를 승계했습니다. 그는 역관 출신으로 중인이었습니다. 그는 박제가의 실학을 발전, 확대시켰습니다. 개화는 신분제도를 없애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중인 출신인 그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오경석은 한의사였던 대치 유흥기와 같이 활동했는데, 1879년에 오경석이 사망하자 유흥기가 승계하여 개화파를 이끌게 됩니다. 그는 백의정승이라는 별명을 가졌었고 교육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위정척사파**  
개화파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갈라집니다. 온건개화파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민영익, 김성근 등으로 청일전쟁으로 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의 이홍장이 시도하고 있는 양무운동과 같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친청세력 이었습니다.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이 앞서 시행했던 명치유신과 같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조선의 뒤쳐진 현실을 중국에 예속된 조선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친일세력 이었습니다.

위정척사파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물리치자는 뜻입니다. 유교는 옳은 것이고 천주교 등 외래 사상은 틀리다는 주장입니다. 서양문물은 물욕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인륜 문명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으며, 과학보다 도가 더 중요하며 무보다 문이 중요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최익현 등이 주도했던 이들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했습니다. 외세를 배제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조선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패망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종: 청나라에 영선사 파견, 개화파: 후쿠자와 유키치와 접촉**

1880년 김홍집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던 중에 청나라 공사관 서기관이었던 황준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김홍집에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이 외세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외교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책략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친중, 결일, 연미가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김홍집은 이 책을 고종에게 가져다 주었고 고종은 이 세 나라와 잘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전국으로 퍼지자 위정척사파는 극렬하게 반대했고 백성들 또한 대다수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1881년, 고종은 지금의 외무부와 비슷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청에 영선사,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파견합니다. 김윤집, 어윤중은 영선사로 청나라에 가게 되는데 임오군란 때 민비를 멸망 일본 전에 대원군으로부터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

# 동문을 기리는 Shakespeare 번역시

고 홍 호(62)

그대가 나를 보고 일 년 중 그 계절을 연상하리라  
누런 잎이 몇 개 남던가 아니면 모두가 가버린 나무가지  
귀여운 새들이 깃들어 노래하던 곳  
이제는 텅 빈 버려진 교회 찬양대석처럼  
추위에 떨고있는 가지  
그대는 나를 마지막 햇살이 서산 너머 바래는  
그저 황혼일 뿐이라고 --  
주검의 대변인 검은 밤이 온누리를 고요히 잠재우는 전야  
청춘의 잿덤이 위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꽃  
마치 임종의 침상에서  
마지막 정열을 연소하듯이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그대의 사랑이 강해지리라  
멀지 않아 영영 잃어버릴 사랑이기에

(셰익스피어 소네트, 십사행 시 73편)

Shakespeare's Sonnet #73  
That time of year thou mayst in me behold  
When yellow leaves, or none, or few, do hang  
Upon those boughs which shake against the cold,  
Bare ruined choirs where late the sweet birds sang,  
In me thou seest the twilight of such day  
As after sunset fadeth in the west,  
Which by and by black night doth take away,  
Death's second self that seals up all in rest .  
In me thou seest the glowing of such fire  
That on the ashes of his youth doth lie  
As the death-bed whereon it must expire,  
Consumed with that which it was nourished by.  
This thou perceiv'st which makes thy love more strong,  
To love that well which thou must leave ere long.

(Sonnet #73 by Shakespeare)

종은 극비리에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위정척사파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일본과 거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익이 주선했고 이동익도 수행하려고 했으나, 그는 떠나기 전에 행방불명이 되고 그 이후로는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길준은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일본에 남아서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여 새로운 문물을 배웠습니다. 급진개화파와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쿠자와는 일본 제일의 현자이고 일본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돈 만원권에 프린트된 그의 초상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이오 의숙을 창설하여 일본 근대화에 이바지한 많은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사신보를 만들어 계몽활동을 했습니다. "탈 아시아"라는 기치를 앞세워 일본의 유럽화를 외쳤습니다. 김옥균은 1883년에 60명을 게이오 의숙에 유학하게 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를 뒤에서 조종한 인물 이었습니다.

**대원군의 반격: 이재선 반역 사건**  
조선책략을 읽어본 유생들은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론 또한 위정척사파들의 편이었습니다. 인기가 좋았던 대원군은 첩의 아들인 이재선을 앞에 세워, 경기도 지방에 과거시험을 치려고 올라온 유생들을 이용하여 대신들과 민씨 일족을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임오군란 일 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임오군란: 대원군의 쿠데타**  
권불 10년이라고 했던가? 대원군의 섭정이 10년째 되던 1873년에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던 9년이 지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구식군대의 "군란" 이라기보다는 대원군이 민비세력을 제거하려고한 쿠데타였습니다. 구식군대가 시작했지만 많은 군중들이 합세했고 이 폭도들을 이끈 인물은 대원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적인 정권을 일시적이거나 잠악하게 됩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조정에 대한 원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1882년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일본과 통상을 연 후부터 쌀이 일

본으로 많이 송출되어 쌀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민씨 외척들의 매관매직과 돈 들여 벼슬자리 얻으면 본전에 이익까지 챙기려고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민비의 잦은 무당국과 밤이 늦게 벌리는 잔치는 궁중의 예산을 탕진했으니 무슨 돈으로 백성을 돌보았겠습니까? 대원군은 섭정 때 구식군대를 잘 정비했고 그들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그런대로 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구식군대 5군영을 2군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일본의 힘을 빌려서 창설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대원군의 군대고 후자는 민비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세청장 쯤 돼 보이는 민경호는 구식군대에 지급될 쌀을 몽땅 착복해 버립니다. 무려 1년 동안 구식군대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쌀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무계를 늘리려고 물과 모래를 부어서 쌀이 섞여 있었습다. 화가 난 군인들은 폭도로 변하여 민경호 집에 방화하고 무위영대장 이경호 집을 습격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대원군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들을 이용한 쿠데타를 주도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까지 합류하여 대원군은 막강한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대원군 형 이최응을 살해하면서 창덕궁을 함락시킵니다. 궁궐로 피신해있던 민경호와 김보현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은 민비를 살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찾았으나 민비는 무사히 궁을 빠져 나갔습니다. 구식군대 병졸들은 대원군 집권을 요구했고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전권이 다시 대원군에게 넘어갑니다. 궁을 빠져 나간 민비는 충주 장호원 목사 민응식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민비를 놓친 대원군은 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시체가 없는 민비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백성들은 대원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는 물가고 해결을 위해서 시전 상인 1000명을 처형했습

니다. 1866년 천주교 신도 8000명 처형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냉혈한 대원군의 무자비한 행위였습니다.

**청: 반란군 진압-대원군 납치, 민비 복권**

충주에 숨어있던 민비는 친척을 통해서 청에 영선사로 가 있는 김윤식, 어윤중과 접촉하여 청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이홍장과 접촉할 수 있었고, 청과 김윤식은 대원군을 납치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이홍장은 많은 영토와 자기들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서양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조선을 확실하게 자기들 영향권에 넣으려고 조선에 회군대장 오장경이 지휘하는 3000명의 병력을 한양에 보냈습니다. 이때 김윤식도 같이 귀국했습니다. 오장경은 고종을 예방한 후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방문하면서 대원군을 자기 막사로 초대합니다.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군 막사로 대원군이 들어서 자마자 체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텐진으로 유배되어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33일 동안의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이제는 절름발이 정권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의 결정을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조청상민수륙장정이라는 일종의 행정명령을 내려 청나라 상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조선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상인들에 대한 피해와 청군의 보호를 받은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행패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서재필의 정계 진출과 개화파와 후쿠자와의 밀착**

1883년 5월, 서재필은 14명의 유학생 대표로 일본에 가서 6개월간 게이오 의숙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 습득력이 남달리 뛰어난 서재필은 불과 6개월만에 통역없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4년 1월에 그는 일본군 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간 군사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사관학교 교장적인 장교양성학교 사관장으로 봉직했습니다. 1882년 8월에 급진개화파들은 임오군란 뒷처리를 위해서 일본에 파견되었고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민영익 등은 후쿠자와 유키치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유키치에게 감화되어 우리도 일본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 2017~2018 한승신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1949 고영철
- 1951 김동수 이상하 1952 김정준 박종식
- 1953 강수상 이상봉 1954 김갑균
- 1955 노용면 박병원
- 1956 김신형 김윤태 서상철 박상기 도상탁 주창준
- 1957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이동성 임종식 임종원 정진묵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수산 김순욱 김윤범 김학륜 김해암 문석면 박용화  
박호연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류치열 유영호 이만택 이동목 이상문 이상설  
이윤순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용균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이종수 임낙중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인환 김택경 김홍석 박명근 박병돈 박정웅 박춘명 박형순  
염극용 오신중 오준철 이광준 이경화 이상일 이종석 임필순 이덕송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 1961 강창욱 광동린 고의걸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김화섭 계훈택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서취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동해 이재승 이준우  
이철희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공창 최성덕 최용섭 최태순 하상태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문상규 민경환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송영두 유충국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조 노인규 김갑중 김계윤 김명준 김승태 김정일 김주승  
김충열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철 김현화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섭 이기환 이법세 이병준 이승현 이수인  
이흥빈 임춘수 왕규현 윤영욱 윤진수 이종두 장세곤 진병학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추재욱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진우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오유섭 오수환 양운택 유광현 유창남 윤흥기 이정필 이종성 이주영 이종오  
이정은 이정필 이홍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옥현 박수안 서좌일 신백효 이광선 이법석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재은 황규정 홍수웅
- 1966 김경세 김은한 김의신 김우신 김종원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영균 이진수 이소희  
이정화 이태안 최무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노영일 김경인 김명원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희주 김 철 문광재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금환 안세현 유우영 이견일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황훈규 홍광신
- 1969 도상철 김병오\*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서 량 송용재 변영석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효운 이승공 이창호 임안무 임용규 정한규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박찬진 박홍식 방준재 송요준 여준구 오석일 유종현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광승용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 훈 김창구  
김호순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윤기철  
이성길 이원택 이종일 장 철 정인용 조세진 하준영 황동하 홍성진 최수강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인영걸 정균희  
정희현 조경호 최인섭
- 1973 고용규 김정용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이계석 임준형 조재중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웅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박종희 박인영 김원정 김자역 배영훈 전경배 조철영
- 1976 김대중 김정아 유영걸 한승신
-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79 백승원 이승호 1980 박남훈
- 1981 남명호 이선희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 1985 박정미 박종효 임경욱 1989 오무연 이선규
- 1991 강민중 1994 신택수 안상훈
- 1999 박종철 이도은 이재용 임경빈 2000 강현석 황필규
- 2001 김태곤 장세권 정영태 2002 최태웅
- 2007 김현재 2008 김혜리 박영수 이익재
- 2009 송경민 양현식 2011 김민형 김유리

— 는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 VA

### 35th CONVENTION DONATION

- 임종식(57) 300 김윤범(58) 100 문석면(58) 250 신상균(58) 1025 이만택(58) 200
- 최창송(58) 15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 500 한성수(60) 50 강창욱(61) 300
- 박승균(61) 250 한수웅(61) 275 한혜원(61) 200 황현상(61) 100 고희호(62) 100
- 김석식(62) 75 박찬형(62) 100 송영두(62) 200 정정수(62) 300 김태웅(63) 1000
- 권영조(63) 1000 조한원(63) 1000 한기현(63) 200 권정덕(64) 500 이홍표(64) 200
- 허선행(64) 500 최준희(64) 160 민발식(66) 100 이명희(66) 1000 최영자(66) 50

- 서윤석(68) 500 이견일(68) 500 차재철(68) 100 변영석(69) 300 윤효운(69) 100
- 이승공(69) 100 강창홍(71) 200 광승용(71) 100 김성환(71) 1000 김유식(71) 200
- 김일영(71) 500 윤기철(71) 1000 이성길(71) 50 이원택(71) 75 박찬호(72) 100
- 오용호(72) 200 정균희(72) 1000 김천일(73) 100 문대욱(73) 300 박진섭(73) 200
- 서인석(73) 500 오인환(72) 300 박종희(75) 175 전경배(75) 200 조철영(75) 10000
- 한민우(75) 1000 김대중(76) 1000 김승관(76) 540 김정아(76) 5000 유영걸(76) 300
- 한승신(76) 5000 최광휘(76) 2500 박일우(77) 1000 권오기(78) 300 백승원(79) 1000
- 남명호(81) 1500 이선규(89) 200 박은경(00) 50 김유리(01) 50
- 서울대학병원 1000 서울의대 동창회 3000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500
- 서울메디칼 2000 두산연강재단 3000 존백 펀드매니저 1000
- 서정훈(Non CME 초빙강사) 200 Econo World Agency 1000
- Raffle 판매 3220 \*저서 판매금 1090

\* 저서 기부자: 임종식(57) 강창욱(61) 한혜원(61) 서윤석(68) 이원택(71) 김영애(김성환 71, 동문부인)

\* 서예 및 미술작품 기부자: 김명원(68) 정균희(72)

\* 특별 상품 기부자: 이흥빈(63) Wine 4 Box (48병)

### GREEN PROJECT FUND

- 김은섭(59) 200 이종석(60) 150 이용길(62) 200 김태형(63) 75 김진우(64) 175
- 이홍표(64) 2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100 김병오(69)\*200 이승공(69) 100
- 윤기철(71) 5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권철수(74) 100 박인영(75) 200
- 김정아(76) 300 한승신(76) 300 박남훈(80) 175 남명호(81) 1000 서귀숙(84) 150
- 이선규(89) 100 강민중(91) 100 이도은(99) 100 임경빈(99) 50 김유리(01) 100
- 장세권(01) 1000 정영태(01) 50 최태웅(02) 100 양현식(09) 100 김민형(11) 100
- 서울대학병원 1000

### CHARITY FUND

- 주창준(56) 25 최창송(58) 3000 채규철(59) 130 최태순(61) 25 송영두(62) 200
- 이상복(62) 200 조한원(63) 75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 채도경(65) 25 최영자(66) 200 이승공(69) 100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김동훈(77) 300 차민영(82) 100

###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100 김학륜(58) 100 김은섭(59) 200 채규철(59) 300 권기홍(60) 500
- 이덕송(60) 200 한성수(60) 100 황현상(61) 100 김한중(62) 200 김현학(63) 100
- 김태웅(63) 10000 한기현(63) 125 이홍표(64) 200 허선행(64) 100 박수안(65) 75
- 김진호(66) 50 이영균(67) 100 서윤석(68) 500 유우영(68) 200 이승공(69) 100
- 김호순(71) 125 박동수(71) 300 배성호(71) 300 서정자(71) 700 최수강(71) 100
- 김웅진(74) 100 김자역(75) 500 정경화(76) 5000

### GENERAL DONATION

- 강수상(53) 600 노용면(55) 200 서상철(56) 150 임종식(57) 500 김석희(58) 100
- 김윤범(58) 100 최창송(58) 300 강상진(59) 200 한성업(59) 50 최종진(59) 225
- 김택경(60) 25 이경화(60) 275 정의철(61) 500 김한중(62) 200 장병호(62) 2000
- 권영조(63) 100 김명준(63) 75 김현철(63) 75 박세록(63) 50 이수인(63) 100
- 이흥빈(63) 200 진병학(63) 50 한광수(63) 225 한기현(63) 4425 김태환(64) 50
- 신두식(64) 100 양운택(64) 100 이홍표(64) 275 임병훈(64) 100 최준희(64) 175
- 임현재(65) 50 정길화(65) 100 장한교(66) 50 정량수(66) 75 강명식(67) 75
- 김성철(67) 75 안세현(68) 100 이상훈(68) 75 황훈규(68) 75 차재철(68) 75
- 최준영(68) 325 박수웅(69) 150 윤효운(69) 100 이승공(69) 100 장한규(69) 50
- 김성환(71) 4425 김형달(70) 100 박찬진(70) 75 방준재(70) 500 광승용(71) 300
- 김유식(71) 150 서정자(71) 50 오동환(71) 100 이성길(71) 550 이원택(71) 200
- 정균희(72) 150 고용규(73) 500 김천일(73) 800 나두섭(73) 200 박진섭(73) 300
- 유영준(74) 100 김원정(75) 700 전경배(75) 200 박남훈(80) 50 남명호(81) 50
- 이도은(99) 100 박혜성(06) 200

### 특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인 Mrs. 정의철(61) \$500, Mrs. 장병호(62) \$2000, 최경은(Mrs. 최준영 68)께서 \$325을 General Fund로, Mrs. 정경화(76)께서는 \$5,000을 Scholarship Fund로 보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함춘공로상을 수상하신 한기현(63), 김성환(71) 동문께서 상금 전액을, 학장상을 받으신 김원정(75) 동문께서도 상금 전액을, 또한 이성길(71), 이원택(71) 김천일(73) 동문들께서는 Silent auction으로 General Fund를 지원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18~2019 정균희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1959 신영철 1961 김화섭
- 1963 선우건영 1964 선우세현
- 1965 조성구 이한승 1970 조영갑
- 1981 이선희

### GENERAL DONATION

이법세(63) 125 이성길(71) 980 (Silnet auction profit)

**회비와 donation을 PayPal을 이용하여 내시는 회원들께서는 Fee를 포함한 금액을 내시어 동창회가 net금액으로 받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yPal에서 은행 구좌로 옮기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없고, 어느 시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데 Fee를 떼고 들어오므로 장부 정리에 고충이 많습니다.